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10,000m에서 마라톤으로 전향한 케냐의 제프리 키루이(24)는 2시간 9분 37초로 깜짝 우승을 차지했다.

71° 무거워진 발걸음, 응원이 움직였다

더운 날씨에 뛰는 것 힘들었다 입 모아
보스톤 마라톤 최고, 또 도전하고 싶어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김시훈 기자 = 출발기온 7도, 이례적으로 무더운 날씨였던 17일 마라톤에 참가한 한국 선수들은 하나같이 더운 날씨 때문에 고역이었다고 입을 모

었다. 힘든 만큼 보람도 컸다. 무더위가 발걸음을 질질러 걷고싶은 유혹에 한두번 발걸음을 늦추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함성소리가 선수들을 다시 달리게했다.

한국선수들은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은 최고대회중에 하나였다고 동의했다. 121명의 한국국적의 선수들이 참가했지만 대부분 자신의 최고기록에 미치지 못하는 기록에 만족해야 했다. 이중 눈에 띄는 몇몇 선수를 만나 완주 후 인터뷰를 가졌다.

더운 날씨에 참가자들 고생

이번 마라톤은 더

▶▶ 9면으로 계속

**〈특별시민〉 4월 28일 개봉
무료 티켓 이벤트**

28일 AMC 로우스 보스턴커먼 극장 개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세백 기자 = 영화 〈특별시민〉이 보스톤을 비롯한 북미 전역에서 4월 28일 개봉한다. 〈특별시민〉은 28일 금요일 보스톤 다운타운 소재 AMC Lowes 보스톤커먼 극장에서 상영된다. 보스톤 개봉을 맞아 무료티켓 이벤트도 진행된다.

5월 장미 대선을 앞두고 현실과 맞닿아 있는 영화 (특별시민 THE MAYOR)은 현 서울시장 ‘변종구’ (최민식)가 차기 대권을 노리고 헌정 사상 최초로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치열한 선거전을 담아낸 이야기다.

〈특별시민 THE MAYOR〉는 정치의 적법한 입문과 정인 ‘선거’ 그 자체에만 집중해 지금까지 한국 영화에서는 본 적 없는 대한민국의 리얼한 선거판을 그려내며 기존 정치 영화들과 차별점을 두었다. 영화의 백미는 바로 3선 서울 시장에 도전하며 한시도 예측할 수 없는 카멜레온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 ‘변종구’에 있다.

‘변종구’는 탈변가인 동시에 누구보다 전략적이며 탁월한 리더십과 쇼맨십을 갖춘 인물이다.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만나는 인물들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입체적이고 다변화된 현실적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한 시도 조용할 날 없는 선거전 속 변종 ▶ 8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만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 출발 한국행 항공권

→ → → →

\$869~

● 평일(월~목)출발 기준

● 성인(항공권기준) 1인당 1석 기준

● 국내 유류보조금 포함

● 1인당 1석 기준 1인당 1석 기준 1석 기준 1석 기준



**창립
47주년**



한국명도림비행기는 도쿄여행 패키지

한국행 항공권 포함가! (도쿄-일본 직항)

도쿄, 서울, 부산, 제주, 광주, 서울, 인천, 서울, 도쿄, 도쿄, 도쿄

● 원하는 일정도 무료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1,890~

1인 기준 (항공권, 숙박, 식사, 교통비 포함)



IACE TRAVEL

웹사이트: www.iace-travel.com
 이메일: info@iace-travel.com
 영업시간: MON-FRI 9:00AM-6:00PM EST

문의전화

1.617.424.8956
1.866.619.4223



Premier Realty Group

Premier Realty Group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ileen Park
(아일랜드 박)
REALTOR®



Tel: 617.935.3241

WWW.BOSTONPARKREALTY.COM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ParkRE@gmail.com
1274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대선 재외국민 조기 투표 화요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대한민국을 향 후 5년동안 이끌 대통령을 선출하는 19대 대선 재외국 민 조기투표가 4월 25일 화요일부터 4월 30일 일요일까 지 6일간 뉴튼소재 보스톤총영사관에서 진행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학생 및 단기체류자 등 국외부재자에 해당되는 유권자들은 한 국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된 증 명서 또는 미국당국에서 발행한 운전면허를 지참하면 된다.

하지만 미국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의 경우 영주권 등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사진이 없는 서류는 사진이 부착된 다른 서류를 첨 부해 제출)를 제시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본인 확인 뒤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받아 기표소 에서 투표한 후 봉투를 봉합하는 곳에서 반드시 투표 용지를 봉투에 넣고 봉합한 다음 투표함에 봉투를 넣 어야 한다. 봉투에 넣지 않은 투표지는 무효처리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노인회가 4월 11일 올스톤 소재 서울설령탕에서 개최한 효도잔치에 60여명이 넘는 시니어들이 참여 해 점심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눴다

노인회 서울설령탕 효도잔치 60여명 참여 성료

5월 17일 셋째주 사랑방 모임에선 건강세미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 스톤 노인회가 4월 11일 올스톤 소재 서 울설령탕에서 개최한 효도잔치에 60여 명이 넘는 시니어들이 참여해 점심식사 를 하며 담소를 나눴다.

서울설령탕 주관으로 열리는 효도잔 치에 참가한 시니어들은 좀 이른 11시 께 대부분 서울설령탕에 모여 식사를 대접 받았다. 서울설령탕에서는 1시까지 여유 있게 시간을 제공했지만 한순용 노인회

이사는 “이른 시간에 식사를 끝내서 영 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일찍 끝 냈다” 고 밝혔다.

식사를 마친 시니어들은 식사후 서울 설령탕 앞에서 모여 단체 기념사진을 찍 었으며 삼삼오오씩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노인회는 5월 17일 셋째주 수요일 사랑방 모임을 개최하며 이 때 건강세미 나를 갖기로 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 *신경 치료 *보철 전문
-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재미한인장학기금 6월16일까지 지원자 접수

2016년보다 장학생 규모 소폭 늘려 40명 내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주미대사관은 2017년 재미한인장학기금 대상자를 40여명 내외로 선발기로 하고 오는 6월 1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주미대사관은 기금 이자율하락에 따라 선발규모를 2016년도부터 40명 내외로 축소했다.

정규 학사학위 이상 과정에 재학중인 한국계 대학(원)생으로 부모중 한 사람이 한국계인 동포학생, 입양된 동포학생, 유학생으로서 직전 1년간 GPA 3.5(예능계 지원자 3.0)이상인 사람은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 장학금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주미대사관이 시행하는 재미한인장학기금(The Korean Honor Scholarship)의 2017년도 20장학생 선발규모는 40명 내외로서 미국 35명 내외, 캐나다 5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이다. 캐나다 지역 장학생은 주캐나다 한국대사관에서 공고심사.선발.장학금 지급 등 전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미국 지역은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동포학생과 한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장학생 32명 내외, 예능계(음악·미술) 장학생 2~3명, 특별장학생(장애학생 등) 1~2명 이다.

장학생 선발자 중 학업성적과 재능이 특출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최우수 장학생 2명 내외를 선발해 2,500달러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우수 에세이상 수상자 4명에게는 500달러씩의 부상을 수여하는 방안으로 장학금 규모와 수상자 수를 조정한다. 지난해에는 총 35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으며 최우수장학생 1명, 에세이 수상자는 내지 못했다.

장학생 심사는 GPA, 추천서, 에세이, 이력서(입

상실적, 특별활동, 리더십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올해 장학생 선발 주요일정은 각 총영사관 별 원서 교부 및 접수(4월 10일~6월 16일), 각 총영사관 지역심사(6월 19~23일), 대사관 중앙심사(7월 3~7일) 및 장학금 지급(9월 18~22일)의 순으로 진행된다.

지원서 및 모집요강은 주미대사관 홈페이지(usa.mofa.go.kr, 정보마당 → 교육정보)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된다.

주미대사관 측은 “선발 규모는 전년도와 같이 40명 내외를 유지할 예정이며, 지원 학생 중 최우수 장학생 및 우수 에세이상의 확대를 통한 우수인재 지원을 넓히기로 했다” 고 말했다.

한편 재미한인장학기금은 1981년 한미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출연한 100만 달러 등 총 290만 달러의 기금투자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3,04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재미한인장학기금은 1981년 한미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출연한 100만불, 1985년도에 추가 출연한 50만불 그리고 2003년도에 한인이민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출연한 80만불 및 2008년도 21만불, 2009년도 24만불, 2010년도 15만불의 추가출연분 등 총 290만불의 기금에 대한 투자수익으로 매년 미국과 캐나다지역의 우수한 동포대학(원)생과 한국유학생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2015년까지 34회에 걸쳐 총 3,043명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bostonkorean@hotmail.com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전 5월 31일까지

시, 수필, 단편소설 부문 공모
한국학교도 2개교 선정 특별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제19회 재외동포 문학상>공모전을 시행한다.

재외동포문학상은 재외동포의 한글문학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동포 청소년들에게 모국어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9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앤도버에 거주하는 최정우씨가 <생일, 마늘밭에서>라는 수필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는 △성인부문, 시, 수필, 단편소설, △청소년(초.중.고등학생) 부문 글짓기로 나누어 진행된다. 성인은 미국에서 7년 이상 체류한 재외동포(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자), 청소년은 미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역대 재외동포 문학상 대상, 최우수상 수상자는 응모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외동포재단은 심사를 통해 부문별 대상, 최우수상 등 총 30편의 작품과 한글학교 2개교를 선정해 특별상을 시상한다. 수상작은 8월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주철기 이사장은 “공모전을 계기로 더 많은 재외동포들이 한글 문학 창작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 청소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제19회 재외동포 문학상>공모전을 시행한다

년들이 한글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응모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 한국시간 기준으로 코리아넷(www.korean.net)을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재외 동포재단 홈페이지(www.okf.or.kr) 및 코리아넷(www.korea.net)에서 확인 가능하다.

bostonkorean@hotmail.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PRING SCHEDULE 2017

Class	Time
SAT II MATH IIC Prep	Saturday 9:00AM-11:00AM 3/25/17-5/27/17
AP/SAT II Biology Prep	Saturday 11:30AM-1:30PM 3/18/17- 5/27/17
AP/SAT II Chemistry Prep	Saturday 3:00PM-5:00PM 3/18/17-5/27/17
SAT II MATH IC Prep	Saturday 6:00PM-7:30PM 3/25/17-5/27/17

SAT Plus SUMMER SCHEDULE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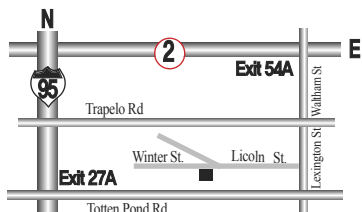
JULY 10 - JULY 28

Class	Time
SAT I Prep	8AM -12PM Mon, Tue, Wed, Thu, Friday
Biology preview	1:00PM-3:00PM Monday, Wednesday, Friday
Chemistry preview	4:00PM-6:00PM Monday, Wednesday, Friday

AUGUST 7 - AUGUST 25

Class	Time
SAT I Prep	8AM -12PM Mon, Tue, Wed, Thu, Friday
SAT I Prep	1:00PM-5:00PM Mon, Tue, Wed, Thu, Fri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박지혜 작가의 '피어리스' 연극 공연

4월 27일부터 한달간, 5월 6일 공연 작가 직접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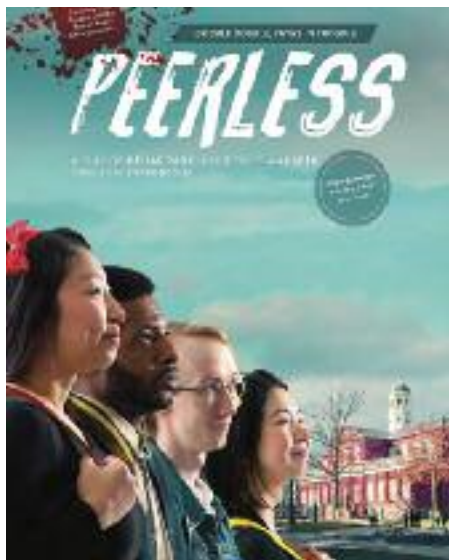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연극 배우이며 희곡 작가인 박지혜의 '피어리스 (Peerless)' 가 4월 27일부터 5월 27일까지 카플리스퀘어에 위치한 보스톤 공립 도서관 라브 홀 (Rabb Hall) 에서 공연된다.

컴퍼니 원 극단 (Company One) 무대로 꾸며지는 '피어리스' 는 쌍둥이 자매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아이비 리그 대학에 들어가려는 꿈을 그리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 얼마간 영감을 받고, 현대의 야망과 포부, 우수 대학 입학 과정, 그리고 '현대 소수민족' 의 의미 등으로 뽑아 낸 희곡 속에 숨겨져 있는 비애를 그린다.

2015년 예일 극장에서 초연을 했으며, 배링턴, 시카고, 캘리포니아에서 공연되고 보스톤에 처음 공연된다. 이번 공연은 컴퍼니 원 극단이 보스톤 시의 셰익스피어 400주년 기념에 맞추어 보스톤 <http://admin.bostonkorea.com/news/news.php> 공립 도서관과 협조로 이루어지며, 입장료는 기부금으로 받으며, \$10을 추천한다.

특히 5월 6일 (토) 오후 2시 공연에는 작가 박지혜씨가 참석할 예정이며, 공연 후 관객과 대화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컴퍼니 원 극단은 소수민족의 희곡을 무대에 올리자는 취지로 창립됐으며, 주정부의 아시안 어메리칸 위원회 회장인 엘리사 최가 이사이기도 하다.

박지혜 작가는 앰허스트 대학을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아고에서 석사 학위를 수여했다. 2013년 현대 작가/작곡가를 후원하는 플레이라이트 호라이즌스(Playwrights Horizons)에서 유망 여성 작가상인 리아 라이언 (Leah



Ryan)상을 받았으며, 2016년 애쉬랜드 새 희곡 페스티벌 (Women's Invitational Ashland New Play Festival)에서 '하나와 겁나는 정자 (Hannah and the Dread Gazebo)' 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그레이스 공주 (Princess Grace) 상을 수상했으며, 프린스턴 대학 등에서 레지던시를 지냈다.

'하나와 겁나는 정자' 는 어느 날 느닷없이 상자를 배송받는 데서 시작된다. 상자 안에는 귀중한 물건들과 자살 편지가 들어 있다. 우송자를 추적한 결과 얼마 전에 양노원 지붕에서 뛰어 내려 자살한 자신의 할머니라는 것을 발견한다. 그런데 시신이 휴전선 북쪽으로 떨어진 것이다. 시신을 수습하려면 북한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한미문화재단 10주년 2017 봄 콘서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미 문화재단 (KACF - 이사장 김문소)은 5월 6일 토요일 7시부터 뉴튼센터 (Newton Center)에 위치한 뉴튼 퍼스트 뱍티스트교회 (First Baptist Church in Newton)에서 2017년 봄 콘서트를 개최한다.

봄 음악회는 "Spring Awakening" (봄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첼리스트 배유미와 가야금연주자 김도연이 프로그램을 만든 특별한 음악회다.

피아노 유승연, 보칼 정원미 그리고 재즈/즉흥 피아노 연주의 귀재 체이스 모린 (Chase Morrin)이 합류해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음악을 선사한다. 특히 가야금으로 세계를 향하고 있는 김도연과 동료 음악인 체이스 모린은 이번 콘서트를 시작으로 올 여름 한국 순회 연주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 4월에는 특히 "Elegy for the Fallen, Light Beyond Abyss"라는 주제하에 당시 암울하던 한국의 상황에 지친 여러 교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극복을 염원하는 뜻에서, 한미 양국의 재능있는 젊은 음악인들이 클래식 음악과 자작 즉흥음악을 선보이며 시 낭송을 같이하여 관객의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KACF 홍보담당 이윤택 교수는 "봄 빛과 함께 코 앞에 다가온 한국의 선거를 맞아 희망을 향해 마음을 추스려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콘서트를 마련했다"고 말하고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오는 가을에는 갈라



콘서트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KACF는 한국 출신 젊은 문화 예술인들과 다양한 문화권에서 보스톤에 결집한 예술인들 간의 콜라보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국 문화의 전통과 현재의 모습을 미국사회에 심도 있게 소개하고 지역의 문화생활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수년간 정기적으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입장료는 \$25 (학생 \$10)이며 KACF 웹사이트 www.koreancultureboston.org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미리 구입하실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이메일 info@koreancultureboston.org로 할 수 있다.

일시: 2017년 5월 6일 (토), 저녁 7시

장소: First Baptist Church in Newton (848 Beacon St, Newton, MA 02459)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행사기간
5월 21일까지

가정의달 사랑 이벤트

천녹삼 구매시
홍삼정 30g & 천녹삼 30g 무료증정

홍천웅, 화애락, 톤골드, 톤마일드
홍이장군 1~4단계, 아이패스

구입시



10% OFF
동인비
전제품

에브리타임 10포
or
홍삼정 30g 증정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H MART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주문후 1~2일 안에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BU 케이팝 바람 거세다

동부 최대 한류 동아리 믹스 인기몰이
실력 급상승 믹스, BU 학생들 심장 두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보스톤 대학의 믹스가 보스톤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방탄소년단, 소녀시대, 트와이스, 시스타 등의 무대로 꾸며진 올해 공연에는 완성된 안무가 많아서 공개오디션을 거칠 정도로 어느때보다 완성도도 높아 관객들의 호응도 컸다.

믹스(miXx: 보스톤 대학 한류음악커버댄스 동아리)는 지난 16일 BU의 Tsai 퍼포먼스 홀에서 전반기 정기 공연을 치렀다. 무대에 오른 90여명의 공연자들은 땀 흘리며 연습해온 실력을 300여명의 관객들 앞에서 마음껏 뽐냈다. 작년 한해 최다 음반 판매량을 기록한 '방탄소년단'의 정규 2집 리패키지 앨범 수록곡 'Not Today'로 시작된 공연은 시스타의 'I Like That'과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를 거치며 절정에 다다랐다. 원곡의 분위기를 물씬 살린 의상과 절도 있는 군무를 본 관객들은 마치 케이팝 아이돌을 만난 듯 끊이지 않는 환호를 보냈다.

믹스 공연을 처음 본 음대생 요세프 씨(무대 엔지니어 전공)는 믹스의 공연자들이 일반 대학생이라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그는 "음악이나 춤

을 전공으로 하지 않는 일반 학생들이 이정도 무대를 꾸미려면 연습도 중요하겠지만 공연자들의 케이팝에 대한 열정이 정말 뜨거운 것 같다"며 극찬했다.

믹스의 회원들은 전문적으로 춤이나 음악, 무대예술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질적, 양적면에서 가장 큰 한류 동아리다. 미국 내에는 믹스 외에도 유엔의 댄스동아리 케이비트, 위스콘신 주립대학의 캐스퍼 등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며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류 동아리는 소규모의 친목 동아리 형식이다. 이에 반해 믹스는 4년간 활동을 이어가며 600여명의 공연자와 기획 및 촬영 스태프가 거쳐, 한국인들이 많은 서부에서도 찾기 힘들 정도로 규모가 큰 한류 동아리로 성장했다. 졸업생 중 일부는 직접 공연에 참여하거나 관람하기 위해 방문하기도 했는데 멀게는 일본 도쿄에서 날아온 졸업생도 있었다.

올해로 4회째 상반기 정기 공연을 개최한 믹스는 공연이 거듭될수록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 2월 믹스는 한류 산업 관련 명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여는가 하면, 올해에



믹스의 2017년 상반기 정기공연에는 90여명의 공연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방탄소년단, 소녀시대, 시스타 등 한류 인기 가요를 2시간에 걸쳐 공연했다

는 여러 보스톤 지역의 문화 행사에 한국 문화를 대표해서 참가하고 있다. 이런 적극적인 활동 덕분에 믹스에 관심을 갖는 단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주 보스톤 한국 영사관이 작년부터 한국 문화 단체 지원의 일환으로 후원을 이어갔으며, 올해에는 보스톤 유명 사진작가인 Joseph Lee Photography도 관심을 보이며 촬영에 참가했다.

이러한 보스톤 지역 내에서의 높아진 관심과 호응에 대해 믹스 회장 켄 산 씨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켄 회장은 "1년 동안 기획한 행사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번 행사에 후원해준 보스톤 총영사관과 참여한 사진작가들 및 Tsai 퍼포먼스 무대 기술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행사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는 만큼 규모가 작았던 하반기 정기공연을 상반기 규모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 믹스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BU-miXxKPopDance>

- 믹스 유튜브 공식 페이지 : <https://www.youtube.com/user/BU-miXxKPopDance>

itshunne@bostonkorea.com

예술협회 제5회 한인 현대 미술전

운동주 시인 100주년 기념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는 2017년 제5회 한인현대미술전을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렉싱턴 소재 렉싱턴예술,공예모임(Lexington Arts and Craft Society)에서 2주간 개최한다. 2013년부터 매년 가을 초입에 미술전시회를 개최해오고 있는 예술협회는 이번 전시회에 관심있는 미술 작가들을 모집한다.

올해 전시는 운동주 시인 100주년을 맞아 "운동주 시인 100주년 기념전"을 계획하고 있다. 운동주 시인의 시나 시인의 시를 가사로 작곡된 가곡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작품들을 모아 전시한다.

김병국 한미예술협회 회장은 "뉴잉글랜드지역에서 미술 활동하고 있으며 참여에 관심이 있는 한인 및 미국인 작가는 info@kcsBoston.org 혹은 781-367-5993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Bruxir Crown
- 미용 치과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내 글짓기 및 번역 대회

학생들 한글 글짓기로 자신의 생각 표현, 12개 부분 총 170명에게 대상 등 수여
고학력으로 갈수록 실력 점차 높아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4월 8일 제 11회 교내작문 및 한영-영한번역 대회를 개최해 학생들에게 선택한 제목에 자신의 생각과 미래, 특히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감동의 마음을 글로 펼치도록 했다.

기초2부터 고급과정까지 모두 1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 작문대회 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세종상, 한글상 등으로 나누어 총 170명에게 상을 수상했다.

기초2 및 기초3부문의 심사를 맡은 한 교사는 “저학년 학생들은 맞춤법은 많이 틀렸어도 정성을 다해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글로 써 보려 노력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고급부문의 심사를 맡은 교사는 “2세들의 학년이 높아갈수록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 등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쉽지 않은 국문법과 띄어쓰기 등에서도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중급부문을 심사한 교사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존경했고 엄마가 내 마음 속의 최고”라고 시작된 글을 읽으며 내 자신도 감동과 함께 반성의 순간이었다. 2세들의 글을 읽고 또 읽으며 심사하는 내내 감동의 시간이자 ‘더 열심히 지도해야겠다’는 도전의 시간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남일 교장도 “2세들이 자신의 인

제 11회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작문대회 수상자						
부문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세종상	한글상
작문특강 1 기초 2과정	노 윤 (거북이)	허 진	김아윤 김예서	이아윤 김이현	손희수 유하스틴즈 이재현 장건 조민수 진승한 고종익 서윤재 한지나 정영우 고서영	
작문특강 2 기초 3과정	오재민 (곰도끼)	박단비 백채연 윤도현	안효기	나연재 전지유	김대환 정태민 민재홍 김종현	이상은
작문특강 3 기초 4과정	이가빈 (늑두발)	강다예	유리스턴즈	정건우	박준영 김영주 오유진 김지우	황애린 서가를 남윤우 최지우 소피메트릭 서정원
		박술빈	이주명	배지원	남궁다은 김해원 이하나 최정민 차예성	공재현 이유리
초급 1과정 부분	기예린 (신라 2반)	민복기	나예준 이노아	민덕기	최재윤 김수연 김주현 김승록 이노엘 김윤 최지영	하 술
		배지훈	정민아 황은하 세울해원	우건우 박리슬 이조우	알렉스 메케트릭 루카스 미 아라우조	이예린
초급 2과정 부분	이준호 (백제 1반)	김진아	송 연	강은서 한예빈 이상원	황성현 정윤현 권시아	이민준 황규민
		이지윤	진승범	이유원 전지영	김민아	박현우
초급 3과정 부분	이혜린 Claire Lee (고구려반)	서예린 김다현	서민재 남소은	김예린	조운서 박대의 김준 이재원 이재희 고신비	권 진 김종민
중급 1과정 부분	이혜린 Herin Lee (고려반)	최유나	최유진 김태유	최서경	김영서 노 진 서혜원 최재민 정동준	김민우 조한희
중급 2과정 부분	서가은 (조선반)	정동현 박세연	신재희	전혜나	조항민 권한나 허선희 새라 킴즈민 김수지 송을 이재서 최이삭 이하민 김 술	김명진
중급 3과정 부분	채민아 (한국반)	이유나	이예은 박현우	최정완 이재훈	이상재 민진종 이유진 신현민 김준영	
고급 1과정 부분	정기려 (금강반)	오혜나	정기채	최유민	최재경 홍준규	정기호 이항별
고급 2과정 부분	박현지 (한라반)	채인옥	이하윤 김태민 이지윤 황선유	박형은 세라	이하은 김하은 김혜나 이인상 최예스터 김산 조유빈	
고급 3과정 부분	김수경 (백두반)	박영우	변성민	조향준		

생은 물론 한인 2세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학교 교육을 잘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은 물론 자녀를 열심히 격려하고 응원해 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한영-영한 번역부문에서도 2세들은 빼어난 한글실력으로 어려운 지문을 번역해 보였다. 이중언어과정인 세종과정(2-6단계)에서도 각 단계별로 대회를 준비하여 개최했다.

동포 2세들의 한글교육은 물론 올바른 역사 및 문화교육을 통해 정체성 확립을 위해 늘 힘쓰고 있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오는 5월 6일에는 학부모회 주최로 봄 바자회를 가질 예정이다. 학교문의 및 교사지원

은 학교 홈페이지(www.ksneusa.org) 또는 남 일 교 장 (508-523-5389, ksneusa@verizon.net)으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글짓기 대회 고급3부문 대상 수상작

제목: 내가 사랑하는 것-나는 나라서 좋습니다.

제 이름은 김수경, Sookyeong Kim입니다. 미국에서 14년을 사왔어도 저는 제 한국 이름을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제 한국 정체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고급3과정 백두반 김수경

어린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수경일까? 나는 왜 줄리아, 세라, 안나가야 할까? 선생님이 출석을 부를 때, 제 이름만 발음 못해서 얼굴이 빨개지는 모습과, 한국 이름 때문에 항상 친구들한테 놀림 받았던 저의 모습은 저에게 상처이기도, 부끄러움이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이름을 바꾸고 싶다고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엄마가 점심으로 김밥 혹은 떡볶이를 싸주면 냄새 때문에 안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대신 집에서 안 먹었던 점심을 먹는 중, 엄마한테 말했죠.

"내일은 팥공버터 샌드위치 싸줘 엄마!"

제가 한국 사람인 것을 잠시 잊고 저는 친구들과 똑같아지고 싶은 마음에 제가 아닌 사람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음식을 미국음식보다 맛있어 하는 저는,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는 저는, 한국문화와 언어를 좋아하는 저는 그렇게 바뀌려는 노력으로 인해 불행했습니다. 힘들어 한 것을 보는 엄마는 항상 제 투정을 받아주고, 팥공버터 샌드위치를 성실하게 싸줬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저한테 말했습니다. "수경아, 너의 인생은 네가 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슬플 때 내가 위로해 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고 웃으면 너는 당당하게 그냥 너답게 받아주면 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나 스스로 숨고 부끄러워 하는 것을 저한테만 힘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저를 우선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저는 제 이름이 너무나 좋았다는 것을 제 안에 쌓아져 있는 답답한 마음과 이해심이 필요한 저한테는 엄마의 말이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부끄러움없이 김밥도 먹고, 출석을 부를 때 발음을 이상하게 하면 웃으면서 맞는 발음을 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안나, 줄리아가 아니라, 한국음식을 좋아하는, 한국말을 할 수 있는, 한국에서 태어난 김수경이라는 한국 정체성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다른 미국 아이들과 다를 수도 있고, 그 이유로 예민하고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로 더 특별하고 이 세상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르고, 그대는 그대로서 스스로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 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bost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H-1B 비자, 추첨제 없애고 고임금 위주로 선발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미국 근로자 보호'
저임금 외국근로자 대신 고학력·고임금 우선순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 거대기업에 유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8일 H-1B 비자 프로그램의 남용을 막고 전문 근로자를 채용하는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발급규정을 재검토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올해 4월 첫주 동안 약 20만여건이 접수된 H-1B 비자는 첨단전문 인력을 미국으로 영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미국 일각에서는 미국인 근로자들을 기피하고 값싼 외국 근로자를 고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H-1B가 미국 근로자들의 취업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관련된 모든 부서는 비자 발급허용 절차를 재검토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지게 된다. 하지만 재검토 후 어떤 변화가 어떻게 바뀔지는 불분명하다.

관련 부처들이 검토 후 구체적인 변경사항을 제시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관계자는 신청 첫 주에 쿼터를 넘는 신청자가 폭주해 이중 무작위로 선발하는 추첨제를 폐지하고 고임금을 우선순위로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언론들은 향후 H-1B 신청자격을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와 고임금자에만 주어질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18일 위스콘신주 케노샤에 있는 공구 제조기업 '스냅온(Snap-on Inc)'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H-1B 비자는 "반드시 고임금과 고학력 신청자에게 발급돼야 한다. 결코 미국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H-1B 비자는 외국의 전문 근로자 채용하기 위해 발급되는 것으로

현재는 주로 과학계나 정보통신 분야에서 수요가 가장 많다. 연간 발급 규모는 8만5000개이며 이중 2만 개는 석사 이상 인력에 배정된다. 하지만 신청자가 많아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발급하고 있다. 경제 전문 매체 포천에 따르면 H-1B 비자의 70%는 인도계에 발급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H-1B 비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실리콘밸리의 아웃소싱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는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평균 6만5000~7만5000달러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IT기업들이 지급하는 평균 연봉은 10만 달러 이상이다. 이에 따라 이번 변화는 오히려 거대 미국 테크기업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뉴욕 타임스의 전망이다.

한편 이달 초 미이민국은 H-1B 비자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현장 실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뉴잉글랜드 생명과학협회 연례학술대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생명과학협회(NEBS)는 5월 20일 토요일 보스톤 롱우드 소재 머크연구소 보스톤오티토리움에서 25차 연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창립 34주년을 맞이하여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2017년 NEBS 25차 연례학술대회 강운중 교수(Columbia University), 리디아 손(Lydia L. Sohn)교수(UC Berkeley), 그리고 키스 정(J. Keith Joung)교수(Harvard Medical School) 생명과학 분야와 연관된 기초연설을 맡는다.

기동혁 34대 회장은 "NEBS 연례 학술대회는 200명의 한인과학자가 참석하는 명실상부 미 동부지역 가장 큰 한인 생명과학 행사"라고 말하고 "한국 생명과학 분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젊은 과학자들의 학술교류 및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코자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NEBS는 미국 보스톤과 뉴잉글랜드 지역의 한인 신진 생명과학자들간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1984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창립 34주년을 맞는 비영리 학술단체다. 하버드, MIT, 예일, 텍스, 브라운, 보스톤, 유넌 등 유수의 대학들과 보스톤 지역에 위치한 20여 개의 생명과학 연구소와 바이오벤처 등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생명과학자 5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회원들 대부분은 박사급 연구원들로서, 생명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생명과학, 의과학, 신약개발, 생체공학, 바이오이미징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루고 있다.

2017년 뉴잉글랜드 생명과학협회 25차 연례학술대회

- 일시: 2017년 5월 20일 (토) 8:00 am - 9:00 pm

- 장소: Merck Research Laboratories Boston Auditorium in Longwood medical area, Boston, MA

bostonkorean@hotmail.com

상금 풍성, 통일 퀴즈 및 통일 비전대회 지원자 모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지역협회는 4월 30일까지 통일골든벨 퀴즈대회와 통일안보비전 발표대회 지역 예선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통일골든벨 퀴즈대회 지역예선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퀴즈대회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보스톤평통웹사이트(<https://sites.google.com/site/boston-nuacorg/vision-2017>)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할 수 있다.

퀴즈대회는 통일골든벨퀴즈대회의 문제집은 위의 웹사이트에 있으며 영어버전은 공부하는데 참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어로만 진행된다.

평통은 지역 예선의 최우수상 1명에게 \$500, 우수상 1명 \$300, 장려상 5명에게 각 \$100씩을 상금으로 지급한다. 이후 미주전체에서 선발된 통일 골든벨 일등 수상자는 7월 초 한국에서 개최되는 KBS특집방송 '도전! 골든벨'에 미주대표로 참가한다. 골든벨 본선 참가자 전원에게는 항공비 전액지원과 상장이 수여된다.

지역 예선은 최우수상 1팀 \$500, 우수상 1팀 \$300, 장려상 2팀 \$200의 상금이 수여된다. 최우수팀은 미주본선진출권이 부여된다. 행사에 대한 문의 평통 윤미자 준비위원장 (mijayun@hotmail/978-987-7388)에게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 'S 포럼'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가 지난 4월 15일(토) 보스턴 인근 웨슬리 도서관에서 제 1회 'S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는 24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S포럼은 동문들의 소통과 친목을 강화하고 전문지식, 트렌드, 경험 등을 공유하고 견해를 담론으로

나누기 위해 갖는 서울대 동문회 소모임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대식 (공대 52, 기계공학 박사) 동문이 'A Plan to Modernize House Painting'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김대식 박사는 자신이 발명한 도구를 보여주며 유용성 및 자세한 사용법 등을 소개했다. 발표 중간 중간에 관심 있는 동문들의 질의가 있었다. 김 박사는 자세한

부연 설명을 하였다.

김대식 박사는 현재 발명 관련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김 박사의 발명품에 관심이 있는 동문은 이메일 thekim-atlab@outlook.com로 연락하면 된다. 이날 모임에는 MIT에 교수로 재직중인 한중운 동문 부부가 처음으로 동창회에 참석해 참석자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에게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정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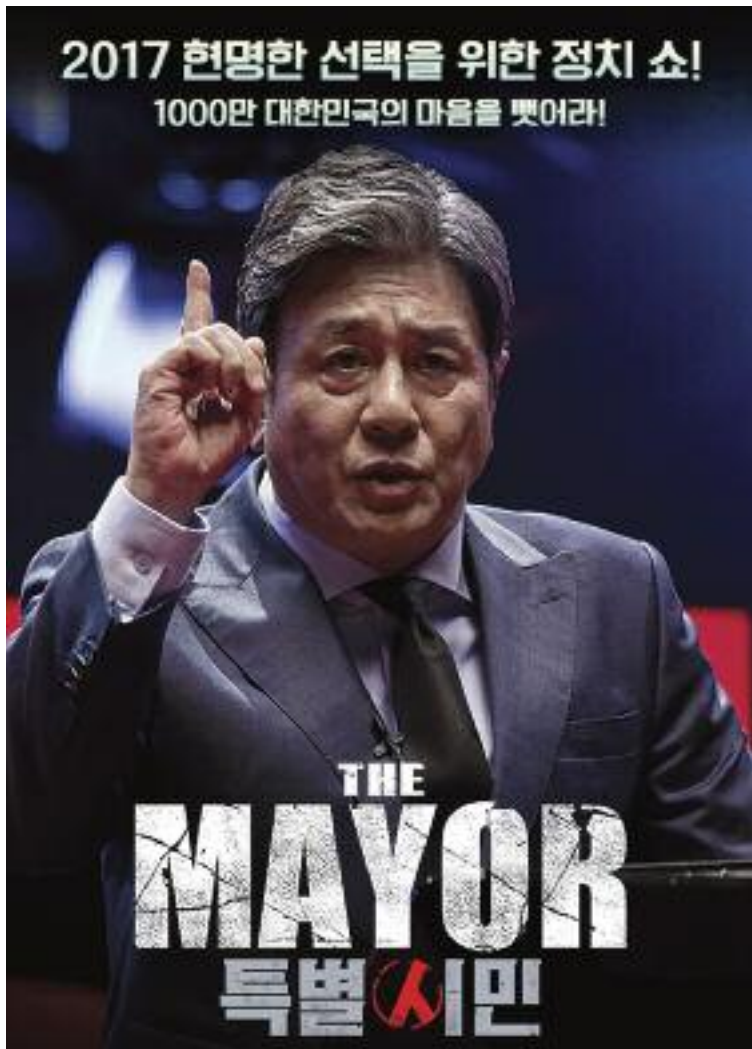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특별시민〉4월 28일 개봉 무료 티켓 이벤트

▶▶ 1면에 이어서

구의 모습은 캐릭터에 완벽 몰입한 최민식의 흡입력 있는 연기로 다채로움을 선사한다.

스크린 귀환만으로도 이미 관객의 기대치를 높이는 연기 명장 최민식, 영화 〈곡성〉을 통해 칸 영화제에서 세계적인 연기와 배우로 우뚝 선 곽도원, 〈수상한 그녀〉로 전국민적 사랑을 받았으며 〈부산행〉에서 소름끼치도록 리얼한 첫 좀비 역할로 20대 대표 여배우로 우뚝 선 심은경이 그리는 현실 정치의 축소판이다.

대한민국의 리얼한 선거 현장을 다룬 신선한 소재와 문소리, 라미란, 류혜영, 이기홍 등 연기와 배우들이 그린 입체적 캐릭터들의 강력한 연기 앙상

블로 주목 받고 있는 영화 〈특별시민〉 벌써부터 관객들의 뜨거운 지지를 얻고 있다. 자세한 개봉관 정보와 영화에 대한 정보는 공식 페이지인 www.the-mayor-movie.com 및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인 www.facebook.com/HitKMovie 를 통해 빠르게 업데이트 된다.

독자들은 특별시민 4행시를 보스턴 코리아닷컴 웹사이트 또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댓글로 달아 응모할 수 있다. 응모한 독자 중 12명을 선발해 1인당 2장의 영화티켓을 증정할 예정이다. 응모 마감은 4월 25일 밤 12시까지이다.

hsb@bostonkorea.com

보스턴 마라톤 2017

신에 키루이, 노장 키플라갓, 케냐 선수들 남녀부 싸움이

키루이, 수구루 마라톤 갓 시작한 새내기 깜짝 입상
미국 겔른, 해세이도 남녀부 동반 입상, 자존심 지켜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김시훈 기자 = 24세 신에 제프리 키루이(남자부, 케냐)와 에드나 키플라갓(여자부, 케냐, 37)가 17일 열린 제 121회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케냐의 마라톤 선수들이 남녀부 동반 우승을 거두면서 케냐는 작년 대회에서 에티오피아에 동반 우승을 넘겨줘야 했던 한을 풀었다.

남자부에서 우승한 제프리 키루이는 육상 10,000m가 주 종목이었다. 2012년 월드 주니어 육상 선수권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는 제프리 키루이는 보스턴 마라톤에서 2시간 9분 37초로 우승함으로써 그의 생애 3번째 풀코스 마라톤 출전을 우승으로 장식했다. 제프리 키루이는 기자 인터뷰에서 “시작 지점부터 동료들과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보스턴 마라톤 이전까지는 트랙이나 필드종목에 나섰고, 이번 보스턴 마라톤은 3번째 마라톤 참가라 우승까지는 기대

하지 않았는데 우승할 수 있어서 기쁘다” 는 소감을 남겼다.

같은 케냐의 노장 에드나 키플라갓은 2시간 21분 52초의 기록으로 여자부 우승을 차지했다. 2011년 대구 육상경기대회 우승으로 한국 마라톤 팬들에게도 익숙한 에드나 키플라갓은 “오늘 컨디션이 좋았던 것이 유효했다. 가족들과 두 아이 카를로스(13)와 웬디(9)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다.” 며 영광을 돌렸다. 키플라갓은 30km 지점의 급수대에서 물병을 놓치는 위기상황도 있었지만 다음 급수대에서 물병을 집어 들어 위기상황을 모면했다.

미국 선수들의 활약도 눈에 띄었다. 남자부의 겔른 루프(30)와 여자부의 조던 해세이(25)는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남자부에서 미국 선수의 입상은 2014년 메브 케프레지기 이후 3년, 여자부 입상은 2011년 데제르 데비라 이후 6년만이다. 루프는 35km가

지 키루이와 우승경쟁을 겨뤘지만 이후 막판 스피드를 내기 시작한 키루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2시간 3분 14초의 기록으로 2위를 기록했다. 해세이는 완주 후 결승선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와 눈물의 포옹을 하며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한편 남자부에서는 오랜만에 아시아 출신 입상자가 나왔다. 일본의 수구루 오사코(25)는 2시간 10분 28초의 기록으로 3위를 들어와, 2001년 한국의 이봉주 선수 우승 이후 16년 만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입상하는 아시아 출신 마라토너가 되었다. 수구루는 우승자 키루이와 마찬가지로 10,000m가 주 종목이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10,000m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한 경험도 있다. 이번 보스턴 마라톤이 자신의 생애 첫 마라톤 출전이었던 수구루는 깜짝 우승으로 관객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더 나은 성적을 보여주겠다” 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itshunne@bostonkorea.com



여자부에서는 같은 케냐의 에드나 키플라갓(37)이 2시간 21분 52초를 차지해 케냐팀은 작년 대회 에티오피아의 우승 독식을 설욕했다



일본의 수구루 오사코(25)는 자신의 생애 첫 마라톤 공식 대회에서 2시간 10분 28초로 깜짝 3위에 오르며 2001년 한국의 이봉주 선수 우승 이후 16년만에 아시아 선수 입상 기록을 세웠다

광어,우럭
사시미에
한잔 생각나시면
오빠 스시로
오세요

185 Harvard Ave. Allston

617 202 3808

BLESSING
CHANNELS
네일 아카데미
BCNAILSCHOOL.COM

지금! 자격증에
도전하세요

네일아티스트는 혁신적인 네일아트 디자인의
트렌드를 이끄는 전문 직업입니다.

겨울 수강생 특별할인 기간 (~ 2월 28일)

“성업 중인 많은 네일 샵에서
본 학원 출신의 네일 테크니션을
항상 찾고 계십니다.”

MA Best Nail School
Reviews 5stars
> 저렴한 Tuition
> MA주 내 최단기 자격증 취득 과정

CATHERINE'S ART CLASS

www.artwithcatbyun.com

주말 미술교실은 학생들이 실기연습을 통해 순수 미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기교를 배워 실력향상을 도모합니다.
미술을 통해 삶과 예술의 가능성이 열려지도록 지도합니다.

드로잉, 수채화, 유화

포트폴리오 제작

학생 및 성인반 개설

Cell: 310.985.3737(미술 수업 상담)

(강사 : 홍익대학교 서양학과 졸업, Pratt Institute Fine Art 석사)

76 Winn Street #1C, Woburn, MA 01801
bcna76@gmail.com

781.729.8868

(한국어 문자 가능)



샬롬치과
SHALOM DENTISTRY

일반진료
응급치료

보험: Delta, BCBS,
MetLife, Cigna, Aetna,
Guardian, Altus Dental



영업 시간

화: 오전 8시-오후 5시
수: 오전 8시-오후 6시
목: 오전 8시-오후 5시
금: 오전 8시-오후 12시

원장: 김진구

978.263.4592

www.shalomdentistry.com
smile@shalomdentistry.com

418 MASSACHUSETTS AVE. ACTON, MA 01720

한국인 참가자들 “보스톤 마라톤 최고예요!”

▶▶1면에 이어서

위와의 싸움이었다. 한국에서 온 참가자 중 씨는 가장 빨리 결승선에 도착한 참가자 중 한 명인 신길선 씨는 “힘에 부쳐서 도저히 인터뷰를 못하겠다” 며 인터뷰를 사양할 정도였다.

에베레스트, K2등 히말라야 5좌를 등정한 경험이 있는 김진태(54, 직장인)씨도 이번 마라톤은 너무 힘들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6대 메이저 마라톤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그의 최고기록은 경주 동아마라톤에서 기록한 2시간 51분 58초이다. 그는 풀코스도 47회나 완주하고 산악 마라톤으로 단련된 베테랑이었지만 40km 부근에서는 뛰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보스톤 마라톤은 지금까지 경험한 마라톤 중에 최고의 대회였지만 한편으로는 제일 힘들었던 대회로 기억될 것” 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실제로 전문 선수, 일반 참가자 할 것 없이 평소 대회보다 많은 참가자들이 경기 도중 쓰러지거나 완주 후 구급차에 실려 나오는 모습이 많이 포착되었다. 한 참가자는 결승선을 앞두고 쓰러진 뒤 몇 번이나 일어나려 했지만 일어나지 못하자 뒤에서 뛰던 한 참가자가 그를 부축하며 결승선을 통과해 관객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건강을 위해 달린다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김영철(45, 직장인) 씨도 풀코스만 80여회 참가한 베테랑이다. 그는 작년에도 보스톤 마라톤에 참가하려 했지만 업무가 겹쳐 오지 못하고 올해 겨우 오게 되었다며 기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라면 보스톤 마라톤은 꼭 달려보고 싶은 대회다. 날씨도 덥고 시차적응에도 실패해서 몇 번이나 걷고 싶었지만 열정

적으로 응원하는 보스톤 시민들 때문에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다” 며 소감을 전했다. 당뇨증세가 발견되어 마라톤을 시작한 그는 자신에게 있어 마라톤은 삶의 원천이라 말했다. 그는 “마라톤 대회 참가한다고 혼자 외국에 나가게 돼서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항상 이해해 주고 격려해 줘서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싶다” 고 전했다.

보스톤 마라톤은 최고의 대회

서울 금천구에서 온 김경임(47, 자영업)씨는 보스톤 마라톤이 외국에서의 첫 마라톤 참가였다. 김 씨는 “금요일에 입국했는데 아직도 시차적응을 제대로 못해 힘들었는데 날씨도 더워서 특히 Heart-break Hill(심장과열 언덕)이라고 불리는 언덕 오를 때 힘들었다” 고 완주 소감을 전했다. 그는 “주변에서는 마라톤이 격한 운동이니까 무리하지 말라고 말리지만 완주를 하고 난 뒤의 성취감 때문에 끊을 수가 없다” 면서 “기록에는 연연하지 않고 마라톤을 즐기면서 하겠다” 고 말했다.

KRRC라는 한인 마라톤 클럽의 멤버 13명과 함께 뉴저지에서 보스톤을 방문한 최상경(51) 씨는 자녀가 보스톤 대학을 졸업해서 친숙한 대회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마라톤 대회를 다녀봤지만 보스톤 마라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회구성, 헌신적인 봉사자들과 열정적인 시민들이 아우러진 최고의 대회” 라고 극찬했다. 그는 “올해는 날씨 때문에 기준 기록 통과에는 실패했지만 내년에 다시 참가해서 꼭 기준 기록을 통과하겠다” 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itshunne@bostonokorea.com



이날 참가한 한국인 참가자들은 보스톤 마라톤이 “아름다운 풍경과 잘 짜여진 대회, 헌신적인 봉사자들과 열정적인 시민들로 최고의 대회”라고 극찬하면서도, “기도의 마라톤 하기에는 더운 날씨로 힘에 부쳤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진태(54) 씨, 김영철(45) 씨, 최상경(51) 씨, 김경임(47) 씨)

오늘 반찬

Today Banchan

메뉴(1회 \$100)

4/26(수), 4/29(토)

- 육개장: 32oz 2통
- 어묵탕: 32oz 2통
- 돼지갈비: 24oz
- 계란 소고기 장조림: 24oz
- 도토리묵: 16oz
- 호박나물: 12oz
- 김치: 16oz

(알려지지 않은 분은 미리 알려주세요)

100% 보장

신선한 재료
NO MSG
배달 당일 요리
(김치, 젓갈 등 저장음식 제외)

주문

배달 전일 저녁 8시까지 주문 접수
배송은 수, 토요일 밤 6-9시 사이
이메일: todaybanchan@gmail.com

TEL: 857.998.9172
Kakao: todaybanchan

“당신의 환한 미소가
바람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메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유망했던 풋볼 스타 교도소에서 자살

전 패트리엇 선수 스스로 목숨 끊어
살인죄 유죄 판결 종신형 받고 수감 중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스에서 타이틀엔드로 활약했던 아론 헤르난데즈가 감옥에서 자살을 하였다. 헤르난데즈는 한때 촉망 받던 스포츠 스타였지만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다.

헤르난데즈는 19일 새벽, 수감 중이던 독방에서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교롭게도 19일은 헤르난데즈의 소속팀이었던 패트리엇스가 지난 시즌 슈퍼볼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한 날이었다.

2010년 NFL 드래프트를 통해서 패트리엇 유니폼을 입게 된 헤르난데즈는 불과 2년만에 NFL 최고 타이틀엔드 중 한 명으로 성장하였다. 그 결과 헤르난데즈는 2012년에 패트리엇스와 4천만 달러에 계약을 연장하는 등 앞날이 기대되는 스포츠 스타였다.

그러나 2013년 1월 20일에 있었던 AFC 챔피언십 경기 이후로 헤르난데즈는 더 이상 풋볼을 할 수 없었다. 헤르난데즈는 2013년 6월 18일,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매사추세츠 교정국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헤르난데즈는 수자-바라노스키 교도소의 독방에서 새벽 3시경 자살 시도 직후 발견되었다. 이 교도소는 최고 수준의 보안 설비를 갖춘 곳이다.

헤르난데즈는 침대 시트를 창문에 묶은 뒤, 이 시트에 자신의 목을 매 자살했다.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헤르난데즈는 독방 입구를 여러 물건으로 막아 놓았다. 교도관들은 헤르난데즈가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에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고, 공식적으로 헤르난데

즈는 레오민스터에 위치한 유매스 병원에서 오전 4시 7분에 사망했다.

보스턴 글로브의 보도에 따르면 수자-바라노스키 교도소에서 침대 시트를 창문에 걸어 자살을 시도해 성공한 경우는 헤르난데즈가 처음이다. 이 교도소의 창문은 자살을 시도하기 어렵게 디자인 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록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수자-바라노스키 교도소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재소자는 헤르난데즈를 포함하여 27명이다.

수자-바라노스키 교도소 관계자는 사건 발생 전까지 헤르난데즈의 자살 징후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만약 자살 징후가 보였다면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si@bostonkorea.com



종신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전 패트리엇 선수 아론 헤르난데즈가 자살을 했다



MA주, 감옥 내 자살 미국 4위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스의 풋볼 선수였던 아론 헤르난데즈의 자살을 계기로 매사추세츠 주의 감옥 내 자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매사추세츠 주는 감옥 내 재소자의 자살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연방 정부의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4년 사이에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감옥에 수감 중인 재소자 10만명 당 32명이 자살을 선택했다. 이는 미국 내에서 4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미국 전체 평균보다는 2배가 많다.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는 12

명의 재소자 자살 사건이 발생해 매사추세츠 교정국은 보안 지침을 더욱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2007년에는 시민 단체가 재소자들의 인권이 침해 받고 있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매사추세츠 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이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암과 심장 질환 등의 질병이며, 그 다음으로 많은 숫자가 자살에 의한 죽음이다. 그 뒤로 살인,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등의 이유로 재소자들이 교도소에서 사망하고 있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전,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U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마이클 리 모기지

Norwich Commercial Group, Inc. | NMLS #71655

부동산 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한국어 상담

Pre-Qualification 당일 서비스

전문 분야

통상 대출
정부론: FHA, VA, USDA
고정금리, 변동금리 모기지
점보론
리파이낸스
주택담보대출
그외 홈임프루브먼트 등

Michael Lee, Loan Officer
mike.lee@norcom-usa.com

Michael Lee's NMLS#1464242
Real Estate Sales License No. 9534498

Norcom Mortgage 회사 소개

Norcom Mortgage, Direct Lender Founded in 1989
Fannie Mae/Freddie Mac seller/servicer
Ginnie Mae issuer
In-house underwriting, processing, closing, servicing all centralized
In-house appraisal
Same day loan pre-qualification

125 Cambridge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978.314.8818

프린스턴, 조깅 여성 살인혐의자 8개월만에 검거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와추셋 스키장 인근 프린스턴에서 일요일 오후 가벼운 산책겸 조깅을 위해 길을 나섰다 시신으로 발견된 구글임원 바네사 마코트(27)의 살해혐의자가 범행 발생 8개월만에 검거됐다.

매사추세츠 주경찰은 마코트 살해 혐의자로 콜론 오티즈(31)를 4월 15일 검거했으며 18일 검찰은 오티즈를 우스터 지법에 성폭행미수,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보석금으로 1천만 불을 설정했다. 현재는 살인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곧 살해혐의도 추가해 기소할 예정이다.

매사추세츠 주경찰은 푸에르토리코 출신인 오티즈를 검거할 당시 "마침내 잡았다. 우리는 그가 살해범이라는 것을 증명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구글의 건강보험 계정관리 매니저였던 바네사 마코트는 2016년 8월 첫째 주 주말동안 매사추세츠 프린스턴 소재 어머니집을 방문했다. 매사추세츠 서부에 있는 프린스턴은 와추셋 스키 유원지가 있는 곳으로 산이 우거진 한적한 타운이다. 마코트는 8월 7일 오후 1시께 산책을 위해 집을 나섰다.

마코트가 오후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가족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경찰견 부대인 K-9을 통해 수색에 나섰다. 오후 8시께 집에서 약 0.5마일(약 1킬로) 떨어진 곳에서 마코트의 시체를 발견했다. 발견된 그녀의 코뼈는 부러졌고 목부위에 강한 충격이 가해져 손상됐다.

경찰은 사건 수사가 벽에 부딪치자 공개 수사로 전환해 목격자들의 제보를 받았다. 약 1,300여건의 제보가 이어졌으며 그중 한 제보가 결정적인 혐의자 검거로 이어졌다. 이 제보자는 사건 당일인 2016년 8월 7일 오후 12시 45분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지나다 검정색 SUV가 서있고 차 앞 후드가 올려져 있으며 콜론 오티즈로 추정되는 인물이 전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차고장으로 여기고 지나쳤다.

마코트가 집을 나선 시간은 이보다 조금 후인 1시 15분이었다. 그녀가 향했던 곳은 오티즈가 있던 방향이었고 그 이후 살아있는 채로 돌아오지 못했다. 제보한 운전자가 오후 2시 5분께 다시 그곳을 지날 때 검정색 SUV의 후드는 닫혀있었고 차문도 닫혀있었다. 2시 15분 마코트의 셀폰 전원이 꺼졌다.

경찰이 범인으로 오티즈를 지목한 이유 중 하나는 DNA일지다. 주 경찰은 프린스턴의 인근 도시인 우스터에서 오티즈가 운전하는 차량이 지나는 것을 보고 기술된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아 결국 소재지를 찾아냈다.

두번째 방문에서 오티즈의 DNA 샘플을 받아낼 수 있었고, 확인 결과 마코트의 손톱에서 추출한 DNA와 그의 DNA가 일치하자 경찰은

그를 체포했다.

오티즈는 페덱스에서 새벽 4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근무하는데 사건 당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다. 페덱스 일을 위해 프린스턴을 자주 출입하는 그는 당일에도 프린스턴에 있었다는 것이 핸드폰 기록으로 남아 있다.

오티즈의 변호사 에드워드 라이언은 DNA 증거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고객이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이자 남편이라며 범죄기록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에 대한 범죄혐의로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언은 오티즈의 어머니가 경찰관이라고 밝히고 2016년 5월 우스터에 왔으며 바로 페덱스에 일자리를 구해 자녀들을 부양했다. 오티즈는 현재 혐의만 있는 용의자를 범죄인 취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티즈의 한 여성동료는 그가 스페인으로 성적인 농담을 과하게 했다고 질책을 했다. 반면 오티즈의 이웃은 "그냥 일반적인 이웃으로 보였다"며 놀라움을 표실했다.

hsb@bostonkorea.com



조깅겸 산책 동안 살해당한 바네사 마코트



폭스뉴스의 간판앵커 빌 오라일리(67)

성추문 논란 폭스뉴스 오라일리, 퇴출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성추문에 휩싸였던 미 폭스뉴스의 간판앵커 빌 오라일리(67)가 결국 퇴출당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폭스뉴스채널의 모회사 21세기 폭스는 19일 "여러 주장을 철저히 검토한 후, 우리는 오라일리가 폭스뉴스채널에 복귀하지 않는 것으로 오라일리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폭스뉴스채널 직원들에게도 메모를 보내 "이 결정은 외부 전문가와 검토 끝에 이뤄진 것"이라며 오라일리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시정률을 기준으로 볼 때, 오라일리는 케이블 뉴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인물"이라며 "그의 성공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존중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했다.

오라일리도 성명을 내고 "완전히 근거없는 주장들로 인해 우리는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됐다"며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그러나 대중의 시선 속

에서 살아야 하는 현실이 있다"며 "폭스뉴스에 있으며 이뤘던 성공들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며,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오라일리는 1996년 폭스뉴스에 입사해 오라일리 팩터(The O'Reilly Factor)를 진행하는 간판 앵커로 자리잡았다. 2017년 초 반 오라일리 팩터의 시청자 수는 평균 398만명에 달한다. 2015년엔 1억7800만달러(약 2030억원)의 광고 수입을 올렸다.

승승장구하던 오라일리가 자취를 감춘 건 지난 1일 NYT가 그의 성추문 의혹을 보도하면서다. NYT는 오라일리가 폭스뉴스 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폭스뉴스와 함께 2002년부터 피해 여성 5명에게 소송 또는 발설하지 않는 대가로 총 1300만달러(약 148억원)를 지불했다고 전했다.

후임은 결정되지 않았다. 오라일리가 자취를 감춘 후 그동안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대변인인 다나 페리노, 터커 칼슨 등이 진행을 맡아왔다.

yjy@news1.kr



MR. SUSHI ARLINGTON



781.643.4175

693 MASS AVE. ARLINGTON, MA 02476

BUSINESS HOURS

Monday	11:30AM - 10:00PM
Tuesday	11:30AM - 10:00PM
Wednesday	11:30AM - 10:00PM
Thursday	11:30AM - 10:00PM
Friday	11:30AM - 10:00PM
Saturday	11:30AM - 10:00PM
Sunday	11:30AM - 09:30PM

SINCE 1987

신선한 재료를 엄선한 정통 일식 및 한식

지금 경험하세요!

Catering 주문 환영

TD Garden (Celtics & Bruins Game VIP 일식 담당)
The Colonnade Boston Hotel,
Winchester Country Club 일식 출장 연회 다수 경험



"美 사이버 교란전 '미사일 전념' 北 뒤흔들었다"

2014년 오바마 정권 '레프트 오브 론치' 본격화 이후 김정은, 내부간첩 색출 지시...동요 생겨

(서울=뉴스1) 김해지 기자 = 미국이 지난 2014년 도입한 사이버 교란 작전 '레프트 오브 론치'(Left Of Launch)가 북한 사회를 동요하게 만들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8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레프트 오브 론치를 도입한 이후 "평양이 뒤흔들렸다"고 밝혔다. 미국의 사이버전에 위협을 느낀 김정은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내부 간첩 색출을 늘리고 창의적인 대책 개발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이 같은 동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임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 정권에 이어 레프트 오브 론치 체계를 계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UN)에 의해 금지된 이 사이버전을 이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주 '미국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 사이버전을 하고 있다'는 러시아 기자의 질문에 "무기 개발을 방해하는 사이버 수단은 (러시아 미 대선 개입과) 전혀 다른 문제다"며 "난 이 둘 간에 차이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 정부 내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한 어떤 수단도 국제법에 합치된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NYT는 덧붙였다. 북한의 미사

일 발사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NYT는 이 작전을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실패 원인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 3년간 무수단 발사 시험이 총합 88%의 실패율을 보였다며 "추측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실제 미국이 레프트 오브 론치를 가속화한 뒤 북한의 미사일 시험 성공률은 급속도로 낮아졌다. 무기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사일 개발 시험의 실패율은 평균 5~10% 정도. 또한 무기 개발이 진척될 수록 성공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북한은 정확히 역행하고 있다.

북한은 1980~1990년대와 2000년대 초

반, 파키스탄과 이란에 무기를 수출하는 안정적인 미사일 제조국이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에 큰 위협을 가하는 무수단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이 추세는 꺾이기 시작했다.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감지한 미국이 '물밑작전'을 수행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늦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국가가 실패 원인 탐색에 골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적국의 실험을 방해하는 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을 멈추게 할 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오랜 기간 북한 정권을 연구해 온 마틴 윌리엄스 '노스코리아테크' 소장은 이에 따라 최근 북한의 과학자들이 해커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양자 암호화기기'를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icef08@news1.kr



북한의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북극성-2가 하늘로 솟구쳐 오르고 있다

트럼프 '취임 100일' 전 트럼프케어 통과 재추진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주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 대체·폐지법안, 이른바 '트럼프케어' 통과를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CNN방송은 19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주 상하원 회기 재개 시기에 맞추어 '취임 100일'(4월 29일) 핵심 목표였던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입법과제 달성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코도 트럼프케어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막바지 작업에 이르렀다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말을 통해 내주 법안표결 가능성을 전망했다.

폴리코에 따르면 앞서 트럼프케어 통과실패의 주역이었던 공화당 강경보수와 하원 프리덤 코커스의 마크 매도스 의장(노스캐롤라이나)과 중도와 '투스데이 그룹'의 톰 맥아서 공동의장(뉴저지)은 라이언 의장·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함께 최근 2주간 협상을 지속해왔다.

맥아서 의장은 구체적 안전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도 빠르면 내주 표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당내 분열에 부딪혀 좌절된 트럼프케어가 이번엔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를 두고는 전망이 갈렸다.

한 고위급 정부 관계자는 "표결 통과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다만 그는 아직 일부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법안의 일부 내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며 "법안 재작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문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또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 취임 100일 전에 끝내고 싶지만 그게 가능한지를 확신하지는 못한다"면서 "우리는 독단적인 기한 설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18일 위스콘신주에서 CNN계열사 WTMJ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머지않아 큰 승리를 거둘 것이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패배는 없었다. 단지 협상이 계속 진행중이며 법안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도 가나가와(神奈川)현 소재 주일미군 요코스카(横須賀)기지의 미 해군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에 올라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보험 공약을 지키기로 마음먹었다"며 "수일 안에 의회가 협력해 오바마케어 폐지·대체에 첫발을 내디딜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yeoulim@news1.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골프 레슨

US GTF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

최성조 프로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Master Golf Professional

857.600.6755

HAPPY

해피돌상

고용직 전통상 대여 (백화점, 호텔)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풍성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가족에게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침하게!

- 볼품없는 디자인은 화합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밀한 마음으로 만든 기차와 케이크
- 국내산 유기농산물과 장기, 궁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불법 다운로드 비디오들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로웰지역 유일 한인 치과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중은치과, 중은치아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스티브 발머의 새 도전 "세금 쓰이는 곳 알려줍니다"

'USA팩츠' 온라인 포털 서비스 18일 개시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지난 2014년 마이크로소프트(MS)를 떠난 스티브 발머가 '가짜뉴스 시대' 도래에 걸맞은 '사실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스티브 발머 전 MS 최고경영자(CEO)는 18일 'USA팩츠'(https://usafacts.org)란 온라인 포털 서비스를 열었다.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에 대한 신뢰조차 가려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이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다.

USA팩츠는 연방정부나 주정부는 물론 산하기관, 학교와 화재지구 등에서 수집되는 모든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려 한다.

발머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납세자들에게 단 1센트라도 어떻게 쓰이는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곳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정부가 얼마를 벌어들였고 얼마를 썼으며 어디에 썼는지 임금 내역과 세금 사용 내역이 이해하기 쉽게 구현된다. 서비스가 개시된 날은 마침 '세금의 날'(Tax day), 즉 미국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세금을 내야만 하는 마지막 날이기도 했다.

데이터는 70군데의 기관과 130개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끌어왔으며 18일 현재 170페이지짜리 '10-K'(미국의 상장회사 및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가 증권거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연차보

고서)를 포함해 몇 가지를 갖고 시범 구현을 하고 있다.

발머는 이런 서비스를 수년 전부터 구상했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자선 활동을 펼치자"는 부인과 논쟁을 거쳐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인에게 "내가 내고 있는 엄청난 세금으로 이미 그런 아이들을 돕고 있다"고 했지만 부인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발머는 "(그래서)우리가 내는 세금이 진짜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야기로 보여주려고 한다"면서 가짜뉴스가 판을 치게 된 이런 상황이 되어 서비스를 개시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USA팩츠는 4개 대형 컨설팅사와 제휴, 발간할 보고서들에 대한 감사를 받기로 했다.

발머는 "알게 된 놀라운 사실 중 하

나는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 교육 시스템에 있다는 것이며, 그다음엔 국영 병원에 있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관료'(bureaucrat)라 볼 순 없다는 얘기. 또한 기업소득세가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생각보다 미미했다고 전했다.

발머가 시작한 이 서비스는 대중을 상대로 한다기보다는 공무원과 언론인 등 '시민들의 삶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s914@news1.kr



스티브 발머 전 MS 최고경영자(CEO)



USA팩츠는 세금이 걷힌 내역과 사용된 내역을 알기 쉽게 구현해 알려주는 서비스다

골드먼삭스까지 돌아섰다.. "달러강세 베팅 철회"

"美 경제 차별성 약화 속 트럼프 달러약세 선호"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골드먼삭스가 끝내 달러를 버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골드먼삭스는 18일 그동안 계속 유지해왔던 달러 매수 포지션을 철회했다. 미국의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는 이유다.

자크 팬들 골드먼삭스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낸 투자노트에서 "우리는 최근 몇년간 달러에 대해 블룸버그에 따르면 골드먼삭스는 18일 그동안 계속 유지해왔던 달러 매수 포지션을 철회했다. 미국의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는 이유다."

골드먼삭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달러 약세 선호와 △미국 바깥 경제의 성장세 반등 및 그에 따른 미국 경제의 차별성 약화 △예상보다 덜 매파적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조 등이 모두 달러화가 조만간 강해질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골드먼의 달러강세 베팅은 특히 지난해 11월 대선 직후에 더욱 열기를 냈다. 미국의 올해 경제가 급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그러나 이번 포지션 변경은 미국 경제지표들이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전날 발표된 4월 뉴욕지역 제조업지수(엠펙아이어스테이트지수)나 14일 나온 3월 소비자물가(CPI) 및 소매판매 실적 등은 예상에 비해 훨씬 부진했다. 미 국제 10년물 수익률이 11월 17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을 반영해 달러는 이번주 들어 기술적 지지선을 하향 이탈했다.

골드먼삭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전망을 낮췄다. 팬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산출갭 소멸과 완화된 통화정책 및 금융환경을 반영해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할 것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거시경제와 위험 전망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해 옆으로 물러서 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제 개혁과 인프라 확대정책의 지지부진한 상황과 연준 금리인상 전망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 하향 추세 등도 달러 가치를 계속 누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팬들 이코노미스트는 "2013년 '긴축 발작'을 경험했던 연준은 조심스러운 대차 대조표 정상화를 바랄 것이고 실제 양적긴축에 돌입하면 정책금리 인상을 최소한 일시적으로라도 중단할 것"이라며 "그 결과 달러는 최근 몇달간 전달된 매파적 기조를 통해 우리가 예상했었던만큼의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aebae@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품품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점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춤탈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HURAM | 건강검진

Medi-Tour Travel Company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H+ 양지병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병원
보건복지부 국가 건강검진 기관 평가 5등급 병원(최고 등급)

H+ 양지병원

세병원 완공과 함께 선진종합병원으로 도약한 H+ 양지병원은 350 병상 확충과 최첨단 의료장비 구비, 우수전문의 보강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원 종합검진 ~~80만원~~ ~~65만원~~
남: 65만원 / 여: 75만원

입원 종합검진 기본항목	남성 포함	여성 포함
1. 이비인후 검사 (신체계측, 혈압도, 시력, 청력)	1. 흉부 X-ray CT	1. 상하관 조영제
2. 혈액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LDL, 트라이글리세리드)	2. 전립선 초음파	2. 복부(간, 담낭, 췌장) 초음파
3. 혈액 검사 (중성혈구 백혈구)	3. 골밀도 검사	3. 유방 초음파
4. 영부사자 검사 (2인원, 4인원, 6인원, 8인원, 10인원, 12인원, 14인원, 16인원, 18인원, 20인원)	4. 대장내시경수술	4. 골밀도 검사
5. 신장기능 검사 (혈액 검사: BUN, Cr, eGFR, 노폐물 제거율)	5. 대장내시경수술	5. 대장내시경수술
6. 유선 검사 10종		
7. 체지방 검사		
8. 유방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초음파)		
9. 소화기 검사 (위, 십이지장)		
10. 뇌파 검사 (뇌파 검사, 뇌파 검사, 뇌파 검사)		
11. 폐기능 검사 (폐기능 검사, 폐기능 검사, 폐기능 검사)		

VIP 입원 종합검진 ~~230만원~~ ~~240만원~~
남: 215만원 / 여: 225만원

VIP 종합검진 기본항목	남성 포함	여성 포함
1. 이비인후 검사 (신체계측, 혈압도, 시력, 청력)	1. 흉부 X-ray	1. 흉부 X-ray
2. 혈액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LDL, 트라이글리세리드)	2. 전립선 초음파	2. 복부(간, 담낭, 췌장) 초음파
3. 혈액 검사 (중성혈구 백혈구)	3. 골밀도 검사	3. 유방 초음파
4. 영부사자 검사 (2인원, 4인원, 6인원, 8인원, 10인원, 12인원, 14인원, 16인원, 18인원, 20인원)	4. 대장내시경수술	4. 골밀도 검사
5. 신장기능 검사 (혈액 검사: BUN, Cr, eGFR, 노폐물 제거율)	5. 대장내시경수술	5. 대장내시경수술
6. 유선 검사 10종		
7. 체지방 검사		
8. 유방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초음파)		
9. 소화기 검사 (위, 십이지장)		
10. 뇌파 검사 (뇌파 검사, 뇌파 검사, 뇌파 검사)		
11. 폐기능 검사 (폐기능 검사, 폐기능 검사, 폐기능 검사)		

당일 종합검진 ~~55만원~~ ~~65만원~~
남: 50만원 / 여: 60만원

당일 종합검진 기본항목	남성 포함	여성 포함
1. 이비인후 검사 (신체계측, 혈압도, 시력, 청력)	1. 흉부 X-ray CT	1. 상하관 조영제
2. 혈액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LDL, 트라이글리세리드)	2. 전립선 초음파	2. 복부(간, 담낭, 췌장) 초음파
3. 혈액 검사 (중성혈구 백혈구)	3. 골밀도 검사	3. 유방 초음파
4. 영부사자 검사 (2인원, 4인원, 6인원, 8인원, 10인원, 12인원, 14인원, 16인원, 18인원, 20인원)	4. 대장내시경수술	4. 골밀도 검사
5. 신장기능 검사 (혈액 검사: BUN, Cr, eGFR, 노폐물 제거율)	5. 대장내시경수술	5. 대장내시경수술
6. 유선 검사 10종		
7. 체지방 검사		
8. 유방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초음파)		
9. 소화기 검사 (위, 십이지장)		
10. 뇌파 검사 (뇌파 검사, 뇌파 검사, 뇌파 검사)		
11. 폐기능 검사 (폐기능 검사, 폐기능 검사, 폐기능 검사)		

VVIP 입원 종합검진 ~~55만원~~ ~~65만원~~
남: 50만원 / 여: 60만원

VVIP 종합검진 기본항목	남성 포함	여성 포함
1. 이비인후 검사 (신체계측, 혈압도, 시력, 청력)	1. 흉부 X-ray CT	1. 상하관 조영제
2. 혈액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LDL, 트라이글리세리드)	2. 전립선 초음파	2. 복부(간, 담낭, 췌장) 초음파
3. 혈액 검사 (중성혈구 백혈구)	3. 골밀도 검사	3. 유방 초음파
4. 영부사자 검사 (2인원, 4인원, 6인원, 8인원, 10인원, 12인원, 14인원, 16인원, 18인원, 20인원)	4. 대장내시경수술	4. 골밀도 검사
5. 신장기능 검사 (혈액 검사: BUN, Cr, eGFR, 노폐물 제거율)	5. 대장내시경수술	5. 대장내시경수술
6. 유선 검사 10종		
7. 체지방 검사		
8. 유방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초음파)		
9. 소화기 검사 (위, 십이지장)		
10. 뇌파 검사 (뇌파 검사, 뇌파 검사, 뇌파 검사)		
11. 폐기능 검사 (폐기능 검사, 폐기능 검사, 폐기능 검사)		

★ 검사시간 및 혜택

- 당일 종합검진: 8:30am~12:30pm (4층)
- 입원 종합검진: 3pm~입원2일째 1pm(1박 2일) / 1박3일째 1pm(2박 3일) / 2박4일째 1pm(3박 4일)
- VIP 종합검진: 2pm~입원2일째 1pm(1박 2일) / 1박3일째 1pm(2박 3일) / 2박4일째 1pm(3박 4일)
- VVIP 종합검진: 2pm~입원3일째 1pm(2박 3일) / 3박4일째 1pm(3박 4일) / 4박5일째 1pm(4박 5일)

TV토론, 평론가들 "유승민·심상정 잘한 편, 못한 후보들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 준비가 덜 된 듯해 보였다 홍준표 '대통령 후보 모습 아냐' 지적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원내 5당 대선후보들이 19일 열린 '2017 대선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과 관련 정치평론가들은 대체적으로 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선전했다고 평했다.

신울 명지대 교수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유승민·심상정 후보가 잘했고 그 다음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순"이라며 "그 다음이 문재인 후보"라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이어 "토론회에서 질문이 집중된 문재인 후보의 민낯이 가장 많이 드러났다"며 "상대가 근거를 들어 묻는데 '기억이 안난다'면서 근거 없이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안철수 후보도 동문서답

을 했지만 문 후보보다 나은 점은 근거를 갖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라며 "문 후보가 근거도 없이 답을 하면서 '책임 질 것이냐'고 묻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핵심은 북한 주적 문제와 국가보안법인데 문 후보가 집토끼와 산토끼를 모두 잡으려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또 "홍준표 후보는 능글능글하면서 상대를 잘 공격했지만 대한민국 제2당의 대선후보다운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유승민·심상정 후보가 가장 잘했고 그 다음으로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 순으로 잘했다"고 밝혔다.

홍 소장은 "역시 유승민 후보가 잘했고, 홍 후보의 막말은 지난 토론회보다 덜했고 상당히 점잖아졌다"면서 "

이에 비해 문·안 후보는 준비가 덜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문 후보에 대해선 "선두 후보이기에 집중공격을 받을 것은 충분히 예상이었지만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하지 못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1차 토론회에선 안 후보의 눈 떨림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문 후보가 그런 면을 노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의 경우 "과외를 받았다고 봐야하는데 그리 만족스러울 것 같지 않다"고 평가했다.

황태순 평론가는 "문·안 후보는 오늘 토론회 내내 갑돌았다"며 "안 후보는 상대의 질문에 두루뭉술하게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 문 후보는 불리한 질문에 짜증섞인 표정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유승민·심상정 후보가 오늘 토론회를 주도했고 이들은 대선후보로 검증받는 자리에 있지만 검증자의 입장에도 있었다"면서 "홍 후보는 어느 정도 중간 정도는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가장 잘했고 문·안·홍 후보는 공동 3위 정도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문 후보가 부진한 편이었다"며 "중간부터는 표정이 굳어진 뒤 이어졌다"고 했다.

또한 "안철수 후보는 1차 토론회보다 안정감이 있게 회복을 잘한 것 같다"며 "홍 후보는 대통령 후보의 격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문 후보는 어떤 답에 대해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선 "지난 토론회

보다는 굉장히 여유를 찾은 것 같다"고 했으며 홍 후보의 경우 "정체성을 보이면서 나름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순으로 잘했다"면서 "홍 후보는 정치공세 말고 콘텐츠가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문 후보는 중도표를 얻어야하기에 전략적인 모호성을 택한 모습도 보였는데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goodday@news1.kr



5당 대선 후보들이 19일 KBS에서 열린 KBS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준비를 하고 있다

5자 대결시 文 40.9%, 安 34.4%...양자 文 44.8%, 安 44.4%

문화일보 여론조사...후보자 압축되면 文·安 격차 ↓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후보가 다자구도 지지도 조사에서 6.5%포인트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문화일보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에 의뢰,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54명을 상대로 실시, 20일 보도한 여론조사 가운데 다자구도에서 문 후보는 40.9%, 안 후보는 34.4%를 얻었다.

이들에 이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9.5%, 심상정 정의당 후보 2.8%,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2.7%, 조원진 새누리당 후보 1.0% 등의 순이었다.

문·안 후보의 지지층은 첨예하게 갈렸다. 문 후보는 40대 이하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안 후보는 5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TK(대구·경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문 후보가 앞섰다.

다만 두 후보 간 격차는 대체로 10%포인트 안팎으로 나타나 특정 지역 몰아주기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문·안 후보의 지지율 차는 후보자들이 압축될 때마다 줄었다.

또한 보수진영 주자 가운데 한 명이 출마를 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4자 가상 대결에선 홍·유 후보 가운데 누가 출마하느냐에 따라 다른 지지율 격차를 보였다.

홍 후보가 출마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는 문 후보 43.1%, 안 후보 34.2%, 홍 후보 10.6%, 심 후보 3.0%였으며 반대로 유 후보가 출마했을 때는 문 후보 42.3%, 안 후보 39.2%, 유 후보 3.7%, 심 후보 2.8%였다.

범보수진영 주자들을 배제한 문·안·심 후보의 3자 가상 대결에선 문 후보 42.5%, 안 후보 41.1%, 심 후보 3.6%였다.

특히, 문·안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선 문 후보가 44.8%, 안 후보 44.4%로 0.4%포인트 차 박빙 양상을 보였다.

호감도의 경우 안 후보가 44.9%, 문 후보 43.6%였으며 당선 가능성에선 문 후보가 62.4%, 안 후보 26.2%, 홍

후보 2.9%, 심·조 후보 0.2%, 유 후보 0.1% 등이었다.

대선 투표 의향의 경우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87.2%, '가급적 투표하겠다'는 6.1%로 '투표 의향층'이 93.3%였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지에 대해선 '계속 지지할 것이다'는 응답은 72.8%,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는 26.7%였으며 대선 후보별로는 문 후보 지지층의 78.7%가 '계속 지지 의사'를 밝혀 충성도가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성·연령·지역별 할당 후 유·무선 전화임의결기(RDD)로 표본을 추출, 유선(31%)·무선(69%) 전화면접을 병행해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4.5%다.

goodday@news1.kr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좌)·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후보

KBS 대선후보 TV토론회 시청률 24~26.4%...관심높아

17대 대선 보다 높고 18대 때보다는 낮아

(서울=뉴스1) 박기호, 박응진 기자 = 19일 오후10시부터 12시까지 120분동안 생중계된 '2017 대선후보 KBS 초청 토론회' 시청률이 24.0~26.4%를 기록했다.

20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방송된 KBS 1TV '2017 대선후보 KBS 초청 토론회' 시청률은 전국 기준 26.4%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3일 SBS '대선후보 토론회' 시청률(1부 11.6%·2부 10.8%)의 2배 이상이다.

또한 TNMS가 실시한 조사에선 24.0%였다. TNMS가 조사한 지난 13일 SBS TV토론 시청률

(10.5%)과 비교했을 때 13.5%포인트 증가했다.

이 같은 시청률은 이명박·정동영 후보가 맞붙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진행된 TV토론 때보다는 높았고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경쟁한 2012년 대선보다는 낮았다.

1997년 치러진 15대 대선을 앞두고 처음 도입된 TV토론회는 당시 53.2%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2002년 대선(16대) 당시에는 평균 34.2%, 2007년(17대 대선)에는 21.7%, 2012년(18대 대선)에는 33.1%의 시청률을 보였다.

goodday@news1.kr



KBS 대선 TV 토론회 시청률 26.4%를 기록했다. KBS 방송 캡처



BURLINGTON WEEKLY SALE APR. 21 - APR. 27, 2017

KIMCHI HOTDOG

The ultimate delicious way to improve your life with Kimchi. Savory Kimchi meets a fan fave...hotdogs! Kimchi does go with everything.

김치가 들어간 음식은 뭐든지 맛있다는 진리! H마트가 소개하는 김치 핫도그를 만들어보세요. 매콤한 김치가 느끼한 맛을 잡아줘 핫도그를 한층 더 맛있게 드실수 있습니다.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https://www.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https://www.pinterest.com/hmartusa)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changes in price, size,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 Mart logo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H Mart USA, Inc.)
H Mart BURLINGTON STORE: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4570 / STORE HOURS: Sun - Fri: 9am - 9pm / Sat: 9am - 6pm

고영태측 "변호인조력권 등 침해...위법·부당수사 중단" 촉구

변호인단 보도자료 통해 주장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알선 수재 등 혐의로 구속된 고영태씨(41) 측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 등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위법·부당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무법인 양재 김용민 변호사 등이 포함된 고씨의 변호인단은 20일 자료를 내고 검찰이 고씨를 매일 소환해 밤 늦게까지 조사하면서 불성실한 조사 진행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검찰은 고씨를 일단 소환부터 한 후 20~30분에 겨우 질문 1~2개를 하고, 관련 수사기록조차 없어 막연히 생각나는 질문을 했다

. 구속영장 청구 때는 시급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해놓고 아들이 펜스를 배우는 게 좋은지 등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등 한가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면 반드시 조서를 작성하는데 검찰은 고씨에게 조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면담'이라는 이름으로 근거가 없는 형태의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변호인단은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조사가 끝나고 변호인이 귀가한 후 검찰이 고씨를 심야에 다시 불러 담배를 제공하면서 면담을 실시했다고도 했다. 이는 명백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

이고,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에게 헌법상 인정되는 권리 행사를 방해는 물론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변호인단은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검찰 수사는 위법·부당하고,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현재까지의 위법수사만으로도 수사의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으므로 고씨를 즉시 석방하거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무의미한 수사를 중단하고 즉시 기소하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알선수재와 사기,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씨를 지난 15일 구속했다. 고씨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가 담당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에 앞서 고씨에 대한

검찰 체포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체포적부심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개인회사 더블루케이의 이사였던

고씨는 최씨와의 사이가 틀어지자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cho84@news1.kr



'국정농단' 최순실씨의 옛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 더블루K 전 상무

차사면 '유보'·수사권조정 'OK'...대선후보 5인 법조개혁 공약

(서울=뉴스1) 성도현, 김일창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 및 법원행정처의 일선판사 통제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법원의 개혁이 5월 장미대선의 또다른 화두로 떠올랐다. 유력 대선후보 5명을 상대로 법조계 개혁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 검·경 수사권 조정

2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 후보 5명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모두 찬성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실제 공약 실현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64)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이고 보충적인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63)도 "대한민국 적폐(積弊)의 중심에 검찰이 있다"며 친정인 검찰을 비판한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독점으로 권한 남용과 부패비리·전관예우 등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55) 역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수사 지휘 및 기소권을 갖는 게 맞다"며 분리 원칙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들 후보와 달리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59)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동의하나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는 방식이 아닌 제3의 조직인 '수사청'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검·경 인력으로 하되 상호 견제와 경쟁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58)는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범죄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식으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권 조정은 대선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나왔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형사소송법과 헌법 등 개정 문제도 얽혀 있고 검찰과 법무부의 적극적 반대에 경찰의 요구사항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 공수처 신설 가능성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은 정부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전담해 수사함으로써 권력에 굴복한 검찰의 한계를 넘자는 취지에서 논의되고 있다.

문 후보는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측근까지도 조사할 수 있어야 권력의 눈치보기 수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안 후보도 공수처 신설을 통한 부패 척결을 강조한다.

유 후보도 수사·기소권을 통합하고 책임자는 국회가 복수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심 후보 역시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 사건 전담을 위한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홍 후보는 유일하게 공수처에 회의적이다.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권까지 갖는 새로운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기존 검찰 개혁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현재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 공수처 도입을 피하기 위해 자체 개혁안 마련을 논의 중이다. 공수처도 검찰처럼 정치적 중립 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검찰 위의 또 다른 검찰이 생길 뿐이란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후보 등 5명 모두 대통령의 사면

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서는 심 후보를 제외한 네 후보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차 사면은 "지켜보자"

문 후보 등은 법원에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나온 뒤 여론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성급하게 지금 사면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심 후보만 명확한 반대 입장이다.

문 후보는 특히 뇌물 등 부패 범죄의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양형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등 경제 범죄와 재난·환경 등 집단피해 발생 사건까지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후보는 공수처 대신 특별감찰관 권한을 강화해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자체 검찰총장 승진을 막고 외부에서 영입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섯 후보 중 사형집행에 있어서도 유일하게 찬성한다.

안 후보는 권력형 사건에 있어 기소 여부를 국민이 결정하는 '국민 배심원제' 도입,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을 조직 내에서 뽑는 호선(互選)제, 대법관 수 증원·구성의 다양화·임기 연장 등도 공약에 넣었다.

심 후보는 일단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방식은 동의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직선제로 하고 당선된 검사장이 소속 검사 등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대법원장의 대법관 추천 방식 폐지, 대법관 후보자 추천자·추천사유 등 공개, 대법관 후보 자격의 다양화, 고등법원장에게 인사권 분산, 평판사의 인사위원회 참여 제도와 등을 공약했다.

dhspeople@news1.kr

정호성, 차 재판 끝난 후 함께 선고조만간 석방 가능성도

법원 "공범 기소된 차보다 먼저 선고할 순 없어" 차 재판 동안 구속기한 종료되는 鄭 풀어줄 수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61)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48)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재판이 끝난 후에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0일 열린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 절차를 생략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정 전 비서관이 답변할 내용이) 다른 피고인의 답변 내용, 변론요지서와 중복된다"며 "변론요지서의 진술로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 측은 최씨에게 유출한 문서가 담긴 태블릿PC에 대한 증거 조사도 철회했다. 그동안 정 전 비서관 측은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 절차를 종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재판을 마칠 때까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판결을 미루기로 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 재판부에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7일 기소돼 이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게 된 박 전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과 같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됐기에 박 전 대통령과 같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11월 구속된 정 전 비서관의 1심 구속 기한(6개월)은 다음 달까지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제 막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에,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정 전 비서관을 보석으로 풀어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심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사정을 적절히 감안해 정 전 비서관의 신병에 대해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Premier Realty Group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십니다



나 원 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 보 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Realtor
Direct: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Realtor
Direct: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NEW LISTINGS

Residential



Single Family

4 Sorens Way Bedford, MA
5 Bed, 3.5 Bath, 5,200 sf, Cut-de-sac,
Open house this Sat, Sun
Between 12-2pm
Asking **\$1,699,000**

Residential



Condo

10 Nantasket Ave., Brighton MA 2 Units,
Brighton Center에 위치. 2016년 Gut
renovated Condos, 2bed 2bath 및 Garage,
파킹, T-Stop과의 거리는 0.3 마일 이내
Asking **\$691,000, \$999,000**

Commercial



살롱 & 스파

Roslindale에 위치,
1,200 S.F.
Rent **\$2,500**
Asking **\$45,000**

Commercial



한식&일식 식당

Plymouth 센터에 위치, Full liquor,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recently renovated,
Asking **\$450,000**

LISTINGS

1. Full Plant 클리너 : 렉싱턴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M SOLD**
2. Full Plant 세탁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3.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턴 북부 인근, Asking **\$150,000**
4. Full Plant 세탁소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0,000**
5.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6. 보스턴 인근 일식당 : Asking **\$225,000 SALE PENDING**
7.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3,400 RENTED**
8. Single family : 22 Willow park, Wellesley **SOLD**
9. Condo : 20 Hosmer st, unit 1, Watertown **SOLD**
10. Multi family : 23-25 Baker St., Belmont **SOLD**
11. 미림 식품 : Allston **SOLD**
12. Single Family : 64 Oak St, Newton **SOLD**
13. Condo : 47 Homer ave Unit 5-3 Cambridge **SOLD**
14. Condo : 47 Gordon St, Unit1 Allston **SOLD**
15. 렌트 : 12-16 Ellery St, Unit 603 Cambridge **RENTED**
16. 렌트 : 11 Hibbert St, Lexington **RENTED**
17. 렌트 : 156 Porter St, Unit 236 East Boston **RENTED**
18. Single Family : 6 Sorens Way Bedford **SOLD**

NEW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턴 인근 North Shore, 연매상 \$190,000 Asking **\$165,000**

Commercial



한식&일식 식당

보스턴 서쪽, Full Liquor
연매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599,000**

Commercial



일식당

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위치
Asking **\$120,000**

Commercial



컨비니언스 스토어

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

Commercial



비즈니스 콘도

Brookline
현재 세탁소영업중,
좋은 렌트수입
Asking **\$509,000**

Commercial



한국식당

보스턴 남부에 위치
Full liquor,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Asking **\$140,000**

Commercial



세탁소

보스턴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60,0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보경: 508.361.6064 줄리 전: 978.494.2043 비비안 유: 617.935.2713

세월호 4층서 수색통로 확보 박차... '이젠 미수습자 찾자'

4층 선수·선미서 각각 수색 관련 작업 진행
수거한 520톤 펄 체로 걸러내는 작업도 시작

(목포=뉴스1) 이후민 기자 = 미수습자 9명을 찾기 위한 세월호 선내수색 작업이 20일을 기준으로 사흘째 접어들며 유류품이 속속 발견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수습자는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코리아셀비지와 해수부, 해경, 소방 관계자로 이뤄진 수색팀은 20일 오전 8시부터 선내수색작업을 재개한다.

4층 A데크 6곳, 3층 B데크 3곳 등을 통해 선내에 진입해 수색하는 계획을

공개한 이후 미수습자 9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4층 A데크를 위주로 한 수색작업을 벌여온 수색팀은 이날도 4층 선미 방향에서 진입하면서 지장물과 펄 등을 제거하고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작업을 이어간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선미측 하단에도 4층으로 진입하는 개구부를 뚫는 작업을 전날부터 진행하고 있다. 수습본부에 따르면 주변의 지장물을 제거하고 선체 내 진입을 위한 작업대 설

치 등 작업이 최소 21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전날 수색팀은 작업과정에서 휴대전화 2대를 포함해 유류품 41점을 수거했다. 선체 내부에 있던 펄과 내장재 등 지장물 수거도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인양 후 천공작업 등을 통해 1차로 수거된 펄과 선내수색 작업을 통해 모종삽으로 파나르고 있는 펄 등에서 유류품이나 뼈를 분류하기 위한 기계작업도 이날부터 본격 시작된다.

1차로 수거된 펄의 양은 251㎥로, 포대 수로는 2600여개, 무게는 어림잡아 520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색작업을 통해서는 첫날 15~20kg 내외의 포대기준으로 80개 분량을 빼냈고, 이틀째에

는 150kg 내외의 포대 16개 분량의 펄을 선체 바깥으로 퍼냈다.

펄 분류작업은 유해발굴 권위자인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의 지도·감독 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hm3346@news1.kr



전남 목포시 호남동 목포신항 철재부두에서 수색팀이 세월호 좌현 출입구를 통해 선내 수색을 하고 있다



세월호 선내수색 사흘째인 20일 오전 세월호가 거치된 전남 목포시 호남동 목포신항 철재부두에서 코리아셀비지 작업자들이 세월호 좌현 출입구를 통해 선내로 향하고 있다

세월호 3번째 휴대전화 발견... 펄 속 유류품 분류작업 시작

휴대전화 선체조사위 인계...디지털 분석 예정

(목포=뉴스1) 이후민 기자 = 미수습자 9명을 수색하기 위한 세월호 선내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로 휴대전화 1개가 더 발견됐다.

20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선내에서 휴대전화 1개를 수습해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에 인계했다.

휴대전화나 차량 블랙박스, 태블릿 PC, 디지털카메라, 노트북 등 디지털 정보기기는 중요도를 감안해 수거 즉시 선체조사위에 인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발견된 휴대전화 기종은 팬택에서 만든 '베가' 기종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전에도 같은 기종의 휴대전화가 발견된 바 있다.

선체조사위는 산화방지를 위해 증류수에 담아 보관에 들어갔다. 이미 선체 수색팀은 지난 18일부터 선내수색 작업을 벌여 이틀째인 19일 오전과 오후에 휴대전화 1개씩 총 2개를 수거한 상태다. 앞서 지난 3일 세월호 선체

인양과정에서도 휴대전화 1개가 발견된 바 있다.

휴대전화 내 정보 복구는 민간의 전문 감정기관을 선정해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정보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앞서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은 "전 자기기는 중요증거가 되기 때문에 조사위원회의 권한으로 디지털기기의 외부 감정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장수습본부는 세월호 4층 A데크에 대한 수색 및 진출입로 확보작업을 이날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4층 A데크 6곳, 3층 B데크 3곳 등을 통해 선내에 진입해 수색하는 계획을 공개한 이후 수색팀은 미수습자 9명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4층 A데크를 위주로 한 수색작업을 벌여왔다.

이날 오전 8시부터 A데크 선수 방향의 진출입로를 통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A데크 선수 방향의 추가

진출입로 확보작업에 돌입했다. 선체 진입을 위한 개구부 확보 및 비계 설치, 선체 내 진입로 확보를 위한 지장물 제거 등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4층 선미 방향 진출입로 확보 작업도 계속된다. 수습본부에 따르면 주변의 지장물을 제거하고 선체 내 진입을 위한 작업대 설치 등 작업이 최소 21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세월호 인양 후 천공작업 등을 통해 1차로 수거된 펄과 선내수색 작업을 통해 모종삽으로 파나르고 있는 펄 등에서 유류품이나 뼈를 분류하기 위한 작업도 이날 오후부터 본격 시작된다.

1차로 수거된 펄의 양은 251㎥로, 포대 수로는 2600여개, 무게는 어림잡아 520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색작업을 통해서는 첫날 15~20kg 내외의 포대기준으로 80개 분량을 빼냈고, 이틀째에는 150kg 내외의 포대 16개 분량의 펄을 선체 바깥으로 퍼냈다.

펄 분류작업은 유해발굴 권위자인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의 지도·감독 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hm3346@news1.kr

세월호분향소 찾은 김선동 후보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여야"

세월호 유가족들 "민중의 목소리 대변해달라" 주문

(안산=뉴스1) 최태호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기호 10번으로 출마한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가 18일 경기 안산시 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아 '돈보다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존 야당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타협 않고 제대로 싸웠다면 인양과 진상규명도 훨씬 빨리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제 역할을 못해낸 기성 야당을 비판했다.

이어 "1700만 촛불이 열어낸 대선 정국이 돈보다 사람, 이윤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가치관과 사회운영원리가 자리 잡도록 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그 길에서 진보정치가 해야 할 역할도 더 커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세월호 가족들은 "세월호 빼고는 이 시대의 정의를 말할 수 없다"며 "목포 상황이 좋지 않다. 미수습자 우선 수습과 함께 해수부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다. 3년 전과 똑같다"고 지적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족들은 '환생'을 뜻하는 나비 브로치를 김 후보에게 달아주며 "세월호의 작은 목소리가 거대한 촛불이 된 것처럼 민중연합당과 김선동 후보도 커질 수 있다. 용기를 가지고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고 격려했다.

김 후보의 세월호 분향소 방문에는 김미희,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sun0701@news1.kr



세월호 유가족이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사진 왼쪽)에게 '환생'을 뜻하는 나비 브로치를 달아주고 있다

PROS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worldpay

〈고객 절약 사례〉

본존: 20% 절약
돼지공: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s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Agent/상담원 모집

TEL_617.466.2212 TOLL FREE_888.604.2190

158 Everett Ave. Unit 3 Chelsea, MA 02150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엔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불법 다운로드 세내요? 하루는 비디오회를 즐기세요?

합법적인 엔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arirang NEWS CHANNEL, KBS, MBC, tvN, Net Olive, OCN, etc.

Dedicated to Your Health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함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시진핑 "한국은 中 일부" 논란...트럼프의 이간질?

트럼프 무지와 시진핑 왜곡된 역사관 드러나
정부 "사실여부 떠나 가치 없어"...적극 대응 필요성 지적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7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시 주석이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고 발언한 사실을 전했다.

해당 발언은 내용뿐 아니라 이 발언이 전해진 경위까지 세계 양대국 정상 간 나눴던 대화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황당하고 충격적이다.

이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이뤄진 것 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먼저 해당 발언을 한 시 주석의 폭력적인 역사 인식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소리가 높다.

시 주석의 발언은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던 중국의 동북공정 사업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민족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한다.

최근 한중관계는 한미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이에 따른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악화됐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이 일각 이해되면서도 날로 심해지는 중국의 비외교적인 사드 보복은 '이것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를 대하는 태도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이와중에 공개된 시 주석의 '한국은 중국의 일부' 발언은 오늘날 한국을 대하는 중국의 국가간 예의에 벗어난 행태가 중국 리더의 잘못된 역사 인식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

을 낳는다.

비공개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시 주석의 발언을 언론 매체에 전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솔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상간 대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도 문제지만, 수천년에 걸친 한중간 역사가 양국 관계에 주는 민감성을 인지했다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진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발언을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했다. 한 외교 전문가는 "시진핑의 인식도 문제지만 트럼프가 그것을 전한 게 훨씬 나쁘다"며 "한중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자 우리 외교부는 즉각 반박 입장을 냈다.

외교부는 당국자의 발언으로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지난 수천 년간 한중관계의 역사에 있어 한국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점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

라며 "이러한 이야기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엄중하게 받아들여지면,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날 게 아니라 어떠한 과정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왔는지 먼저 파악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혹시 해당 발언이 시 주석의 말을 통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면 그

나마 다행이지만, 실제 시 주석의 역사관이 투영된 것이라면 중국에겐 해명을 요청해야 하고 미국엔 역사적 사실을 설명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정부 소식통은 "답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미국과 중국 측에 해당 발언이 나온 경위를 파악하는 작업을 시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greenaomi@news1.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측)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일 플로리다 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별장에서 회담을 하기 전에 나란히 앉아 있다

외교부 "시진핑 '한국은 中 일부' 발언 사실관계 확인 중"

"사실 파악되는 대로 필요한 대응해 나갈 것"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외교부는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고 발언했다는 보도와 관련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여러 외교경로를 통해 즉각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사실들이 파악되는 대로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지난 수천년 간 한중관계의 역사에 있어서 한국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점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며,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잘못된 역사관을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 하에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전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올바른 역사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7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12일 가진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라는 시 주석의 발언을 전했다.

이 사실은 미국 온라인 매체 쿼츠(Quartz)가 이날 인터뷰 발췌본을 인용해 추가 보도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greenaomi@news1.kr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한국인들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NYT

(서울=뉴스1) 박형기 중국 전문위원 = 한 반도로 오고 있다던 칼 빈슨 항모가 사실은 반대로 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인들이 미국에게 속았으며 당황해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9일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칼 빈슨호와 관련, 한국을 조종했다는 제목이 한국 언론의 머리기사를 장식하고 있으며, 북한이 가짜 미사일을 군사 열병식 때 전시하는 것처럼 미국도 이제 '블러핑(허세)'을 대북정책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이와 함께 한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더라"고 말한 것을 두고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군사전문가를 인용, "칼 빈슨의 한반도 배치가 위장전술이었다는 것이 밝혀

졌다"며 "한국 해군은 트럼프 대통령이 블러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는지가 궁금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이 이를 선제타격하기 위해 칼 빈슨호가 온다며 긴장감이 고조됐었다.

모든 대선후보들이 선제타격이 전면전을 불러올 수 있다며 미국의 선제타격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놓기도 했다.

NYT는 "칼 빈슨호 에피소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막작전이었다고 변명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를 갉아 먹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칼 빈슨호는 다음주 한국에 도착할 것이며, 한국에 30일 정도 머물 예정이라고 NYT는 전했다.

sinopark@news1.kr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



주보스턴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재외국민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4.25~30

기간 중 6일 이내 / 매일 08:00~17:00

투표소 운영기간·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ok.nec.go.kr,
외교부 홈페이지 mofa.go.kr,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 참조

투표대상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
준비물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거주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등) ※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합니다.
투표장소	주보스턴총영사관 (300 Washington St. 2nd Floor, Newton MA 02458)
재외선거콜센터	(617) 641-2830 / 전자우편 ovboston@mofa.go.kr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William Glanton
978.394.2017



Vicky Xiao
617.480.6362

안녕하세요?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Opportunities를
찾으시는 손님들이나
파시기 원하시는 손님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
Commercial Division에서는
미주 각주에서 들어 오시는
큰 회사로 오시는 손님들을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에만
2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의 연결망에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백영주 올림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Kevin Curry
978.852.296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T: 781.259.4989, F: 781.259.4959

Newton Office:

95 Union St., Newton, MA 02459 T: 617.969.4989, F: 617.969.4959

Belmont Office:

451 Common St., Belmont, MA 02478 T: 617.826.3434, F: 617.826.3446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Steve Son
617.290.0623



Ping Bai
617.233.4162



Victoria Tu
978.201.5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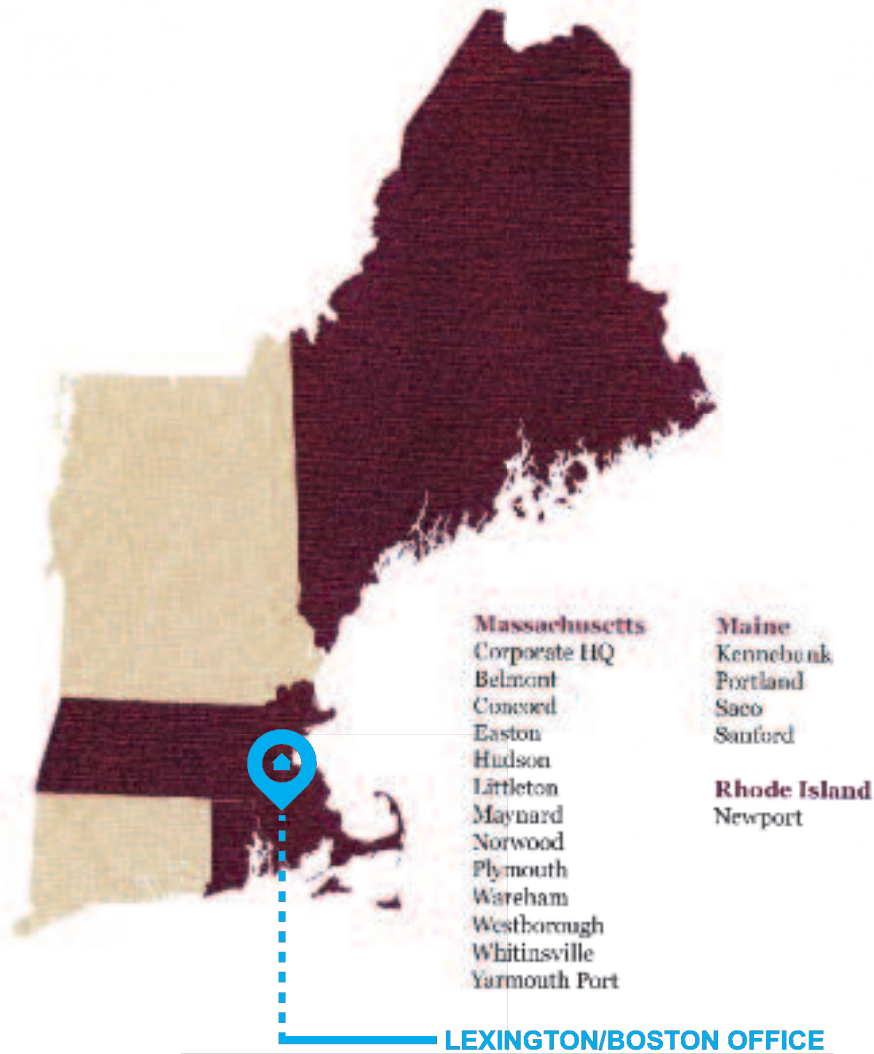
Angela Eleazar
617.319.6657



Al Magurn
508.733.2949



OFFICE LOCATIONS



LEXINGTON/BOSTON OFFICE

18 Offices in Maine, Massachusetts & Rhode Island



Maria Koral
978.973.6043



Nancy Marcis
713.817.6970



Clif LaPorte
978.424.3045



Leslie Luppold
508.423.1535



Johanna Parlon
978.501.4753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드래프트 전 패트리어츠 포지션 점검 - (2)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2017 NFL 드래프트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주에 이어 드래프트를 앞둔 시점에서 패트리어츠 각 포지션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보자.

오펜시브 라인: 강점

패트리어츠의 오펜시브 라인은 완벽하지 않다. 특히 프로 2년차인 가드 조 터네이는 오펜시브 라인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다. 게다가 올해가 계약 마지막 해인 레프트 태클 네이트 솔더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놓아야 한다.

그렇지만 오펜시브 라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패트리어츠의 오펜시브 라인은 NFL상위 그룹에 속한다. 프로풋볼 포커스에 따르면 패트리어츠의 패스 블록킹은 리그 11위, 런 블록킹은 리그 4위에 랭크되어 있다. 브래디는 지난 해 12번의 정규 시즌 경기에서 15번만 색을 당했다.

패트리어츠는 드래프트를 통해서 오펜시브 라인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지만 오펜시브 라인에 확실한 보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디펜시브 라인: 강점

지난 해 패트리어츠의 디펜시브 라인은 상당히 강력했다. 그리고 현재 패트리어츠의 디펜시브 라인 상황은 오히려 더 좋아졌다.

수퍼볼 우승을 끝으로 디펜시브 라인에서 패트리어츠를 떠난 선수는 크리스 롱과 자발 쉬어드이다. 그러나 패트리어츠는 25세로 아직 젊은 코니 일

리를 트레이드로 영입했다. 일리는 아직 전성기를 꽃피우기 전이기 때문에 패트리어츠에서의 밝은 미래가 예상된다. 또한 전천후로 활용이 가능한 로렌스 가이와 프리 에이전시를 통해 계약을 맺었다. 가이는 패트리어츠 디펜시브 라인의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는 선수다.

라인배커: 강점

패트리어츠의 라인배커는 약점으로 분류될 수도 있는 포지션이다. 스타 라인배커인 단테 하이라워와 계약 연장에 성공했지만, 하이라워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특별한 선수가 없다.

그렇지만 포지션 전체를 생각해보면 라인배커 포지션은 팀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해내고 있다. 그리고 하이라워가 항상 경기장에서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면서 수비 선수들의 역할을 상황에 맞게 조율하고 있다.

패트리어츠는 분명 드래프트에서 젊은 라인배커를 물색 중일 것이다. 하이라워를 받쳐줄 선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코너백: 강점

패트리어츠의 주전 코너백인 말콤 버틀러는 현재 계약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패트리어츠는 버틀러를 떠나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버틀러가 패트리어츠와의 재계약에 성공한다면 2017년도 패트리어츠의 코너백은 NFL 최고 수준이 될 것이다.



패트리어츠는 오프 시즌 동안 스테판 길모어와 5년-6,500만 달러에 계약을 맺었다

패트리어츠는 이미 오프시즌 동안 스테판 길모어라는 수준급 코너백을 영입했다. 비록 로건 라이언이 팀을 떠난 것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길모어의 영입으로 라이언의 빈 자리는 충분히 채워진다.

세이프티: 강점

패트리어츠의 세이프티 트리오 데빈 매커티, 듀론 하먼, 패트릭 청은 2016년을 최고의 해로 만들었다. 패트리어츠가 게임당 237.9 패시 야드만을 허용하며 리그 12위의 패스 수비에 랭

크된 것은 세이프티의 역할이 크다. 프로 풋볼 포커스는 패트리어츠의 패스 수비를 리그 1위로 꼽았다.

세이프티 포지션에서 불안한 선수를 꼽자면 청이다. 패트리어츠는 하먼을 스타팅 세이프티로 기용하고 청을 백업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드래프트에서 세이프티의 커버리지 스킬을 보유한 선수를 찾아볼 수도 있다.

스페셜 팀: 약점

패트리어츠의 스페셜 팀이 악몽 수준으로 형편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떤 면

에서는 강점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16 시즌 경기 중에 발생했던 문제들의 상당수가 스페셜 팀에서 일어났다.

스티븐 고스코스키는 10년 넘게 믿을 만한 킥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지난 시즌에는 필드골 성공률이 84%에 그쳤다. 게다가 엑스트라 포인트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스페셜 팀의 가장 큰 문제는 리턴이다. 펀트 리턴과 킥오프 리턴에서 발생하는 잦은 실수는 경기를 힘들게 만들었다.

jsi@bostonkorea.com

추신수, 안타없이 볼넷 1개 추가...김현수 · 오승환 결장

(서울=뉴스1) 이재상, 권혁준 기자 =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안타 없이 볼넷 한 개 추가에 그쳤다. 플레툰에 갇힌 김현수(29·볼티모어 오리올스)는 좌완 선발이 나오자 벤치를 지켰고, 이를 연속 많은 공을 던졌던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휴식을 취했다.

추신수는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오클랜드-알라메다 카운티 콜리시움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경기에서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해 4타석 3타수 무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3경기 연속 안타를 추가하지 못한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22로 하락했다.

추신수는 1회초 첫 타석에서 상대 선발 제시 한을 상대로 잘 맞은 타구를 날렸지만 좌익수 직선타로 물러났다.

추신수는 0-4로 뒤지던 4회초 두 번째 타석에서는 선두타자로 등장해 9구까지 가는 접전을 벌인 끝에 볼넷을 얻어 이날 경기 유일한 출루를 기록했다.

추신수는 1사 후 마이크 나폴리의 안타 때 2루까지 진출했으나 후속타자 루그네트 오도

어, 엘비스 앤드루스가 연속 삼진으로 물러나 득점까지 연결되지 못했다.

추신수는 5회초에는 2사 1루에서 세 번째 타석을 맞아 내야 뜬공에 그쳤다. 8회초에도 중견수 직선타로 물러나면서 더 이상 루상에 나가지 못했다.

텍사스는 이날 선발 마틴 페레스가 1회에만 대거 4실점 하는 등 초반부터 끌려 다닌 끝에 1-9로 대패했다. 2연패의 텍사스는 5승10패로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최하위에 머물렀다. 2연승을 달린 오클랜드는 7승8패가 됐다.

신시내티 레즈와 인터리그 원정 경기를 갖고 있는 김현수는 이를 연속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고, 팀은 2-0으로 이겼다.

볼티모어는 9승(4패)째를 올렸고, 신시내티는 9승6패를 기록했다.

김현수는 이날 신시내티 선발로 좌완 아미르 가렛이 나오자 벤치를 지켰다. 김현수는 지난해부터 왼손투수가 나올 경우 플레툰시스템을 적용 받아 좀처럼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전날(19일) 경기에는 우완 브론슨 아로요가 나왔음에도 선발로 나오지 못했고 9회 대타로 출전해 삼진으로 물러났다.

김현수 대신 톱타자이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한 트레이 만시니는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김현수는 올해 7경기에 나와 타율 0.278(18타수 5안타) 1타점에 그치고 있다.

세인트루이스도 안방에서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를 2-1로 눌렀다.

앞선 2경기과 같은 스코어의 승리를 거둔 세인트루이스는 피츠버그와의 3연전을 싸울 이하며 상승곡선을 그렸다. 시즌 전적은 6승9

패가 됐다. 3연패에 빠진 피츠버그도 6승9패로 세인트루이스와 함께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공동 4위가 됐다.

이를 연속 세이브를 수확했던 오승환은 3일 연속 등판하지는 않았다. 대신 지난해 중반까지 세인트루이스의 마무리였던 트레버 로젠탈이 9회에 마운드에 올랐다. 로젠탈은 1이닝 2탈삼진 1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세이브를 챙겼다.

alexei@news1.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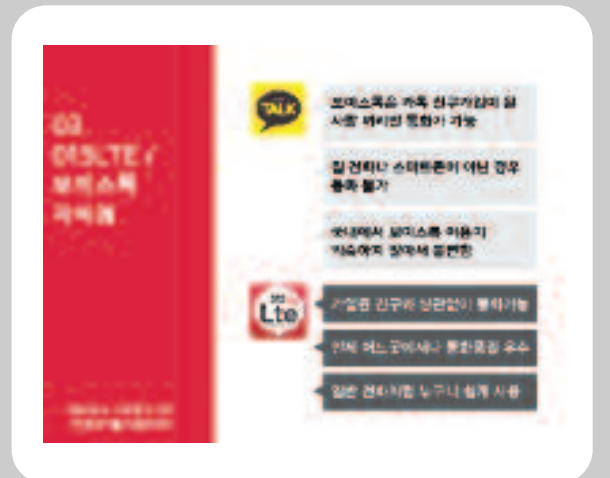
텍사스 레인저스 외야수 추신수(35)

보스톤에서 한국전화번호를 사용하자!

엄마!
617 미국번호 아닌
013 한국번호로
전화해 ♥♥♥

분당: **5¢** (60원)
월 사용요금:
\$1.50 (1500원)

쉽고 편리한 국제전화!
013LTE



가입 문의:

617.955.9112

161 Harvard Ave. #13, Allston, MA 02134



성양루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drew's Korean Presbyterian Church

성삼일 미사 및 전례 안내

성목요일 (4/13)
8pm-주의 만찬미사

성금요일 (4/14)
3pm-십자가의 길
8pm-수난예절

성토요일 (4/15)
9pm-부활 성아미사

부활절 (4/16)
3pm-부활대축일 낮미사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 kccb@gmail.com
www.stdave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열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와 기도의 터니라 (딤후 3:15)

주일예배 / 오후 2:00	금요기도회 / 저녁 7:30
유아 / 유치 / 초등 / 중고등부예배 / 청년부모임	
Grace Bible Study (수) 7:30	LIFE 모임/주일 4:00

담임 목사 / 우치창

7 Clema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보스턴 밀알 한인 장로교회
뉴잉글랜드노회(KAPC)

가르치고 전파하라
(마 4:23)

예배시간:
주일: 1부 9:30, 2부 11:00
금요일: 8:00

밀알한국학교 운영

담임목사: 박일종 목사

주소: 15 Alpha Rd.
Chelmsford MA 01824
전화: 978.501.9117
www.milal-church.org
Lexington에서 25분,
H-Mart에서 15분 거리

유치부: 임성진 목사
유년부: 임재승 목사
유스: David Moon 강도사
청년/EM: David Moon 강도사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종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보스턴 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간판 및 사인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결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t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선호
781.266.7245

UMS 보스턴지사 공식딜러

HITRONS

INADA
The World's Best Massage Chair™
전지역 무료 배송

의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안마의자 메디칼 안마의자

치료기능이 더욱 강력해진
이나다 2017년 NEW Dream Wave 출시

전신 마사지와 효과를 입증한 이나다안마의자는 동전 근육을 풀어주고 근육속 혈관을 자극해 쌓인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노인성 질환,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도 좋아 많은 의사분들이 가장 선호하고 추천하는 마사지처입니다.

1

혈액순환 개선 및 노폐물 제거

106개의 에어백이 온몸의 근육속 깊은 곳에 있는 혈관을 자극해 혈액순환 개선 및 림프마사지 기능으로 노폐물 제거 효과 및 손가락 끝 및 발가락 끝의 모세혈관까지 자극을 시켜 당뇨환자에게 효과.

3

목과 어깨 등의 탁월한 안마기능

특수 제작된 베개 타입 에어백 유닛으로 경추 및 승모근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 안마해주며 Human 안마기법으로 사람의 손과 같은 동작으로 부드럽고 정확한 마사지.

다른 안마의자와
차별화된
이나다 안마의자의
놀라운 효능

4

불면증 해소

106개의 에어백이 온몸의 신경을 부드럽게 하고 통증을 해소시켜 불면증 해소에 탁월한 기능.



2

근육 통증 및 수축 경직된 근육을 부드럽게

노화로 수축된 근육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경직된 신경을 풀어주고 첨단 센서로 지압점을 정확히 찾아 동전 부위를 해소시켜 주어 근육통증을 해소.

5

체형 및 골반 교정 기능

목 아래 경추부터 요추까지 뼈를 둘러싼 근육들의 마사지로 수축된 근육을 풀어주어 활성화시켜 뼈를 지탱하는 힘을 강화시켜 척추 교정 기능. 골반 아래 부분의 대둔 에어 콤투레서로 리더미컬한 안마기능 및 체형 교정 전문가들의 교정기법, 탑재된 특수 스트레칭 기능으로 골반 교정 및 척추 교정 기능.

이나다 안마의자
체형교정
골반교정
탁월한 효과!



DREAMWAVE
48개월
\$194/월 + Tax
36개월 무이자



NEST
\$7,900
\$6,000
36개월 무이자



FLEX 3
\$7,500
\$4,300
12개월 무이자



www.hitrons.com

하이트론스
HITRONS

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201-941-0024 (리지필드 한양몰 내)

베델전자
뉴욕지점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201-417-5350 (코리아 빌리지 1층)

HITRONS
필라지점

1222 Welsh Rd, Unit B5, North Wales PA 19454
215-368-1070 / 201-417-5350
(아씨 플라자 필라지점)

베델전자
한남체인점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8-809-1167

▶광고 마감 :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실 곳 :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뜰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Language Bridge, LLC

Language Bridge, LLC professional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gency, is currently looking for qualifield, bilingual and bicultural native speakers who are willing to provide interpretation services on an asneeded basic in Massachusetts, Connecticut and New Hampshire.

We provid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ervices for legal and medical organizations as well as for community-based agencies, schools, social services, and a variety of the institutions.

If you are interested to apply for the position at our company, visit our website(www.lbridge.com) and register as a new interpreter. The hiring manager from Language Bridge, LLC will contact you within 48 hours with additional information.

We work flexible hours and you will be able to pick your own assignments.
Reliable transportation and internet access are required.

P.O. Box 60503, Longmeadow MA 0116
Phone: (413) 754-3488 Fax: (413) 567-1295
Email: info@lbridge.com
www.LBridge.com

회계 직원을 구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육기관 에듀 보스톤에서 회계 직원을 구합니다.

- 회계학 전공자 (또는 관련 전공자, 경영, 경제)
- Quickbook 사용가능자 우대
- 엑셀 사용가능자
- 영어/한국어 필수
- 보수 : \$40K
- 문의 : 617-254-1117, myung@eduboston.com
- 지원을 하실 분은 위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시시오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주방헬퍼, 웨이터/웨이추레스 구함
T. 781-863-2800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Turn Key! Japanese Sushi Restaurant Business for Sale!

Price drastically reduced by more than 50%! It was \$176,000, now only \$87,000!
Great high traffic (cars and foot) busy main road in major city in Boston.

Write detail about what you do now, no seller financing available.

Serious inquiries only, if interested write to: mikasarealty@yahoo.com for more detail.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국제법 전문 로펌 Immigration Law/International Law/Customs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미국 세관 CBP 압류재산 회수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wayer.com

Crouser & Suh PLLC

1309 Beacon S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Tel: 617.274.5723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견인	617-338-2352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메이역	617-3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소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리즘/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웰페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환국(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트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NH)	603-898-8201
뉴잉글랜드공공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안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 신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주세초태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 신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 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한인회	781-854-8880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F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악기동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80-2999
뉴잉글랜드 신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광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동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R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빌그린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세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여 베렐교회	978-274-236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781-326-9009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타장로교회	781-354-1843
위임프린더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캔시영성장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팡사이딩 청문	617-999-9616
아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레스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 / 모기지

인디펜던트(퓨영역)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인스	617-799-6158

냉동 / 에어컨 / 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윤상래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 / 잔치 / 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뷰티홀 헤어샬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3374
압구정동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 헤어	508-734-0446
타케이 헤어디자이너	508-768-7675
프로페셔널 헤어디자이너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희 헤어(B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 그레이스샬롱	508-879-7777
MIN-AH MAKEUP	508-617-7122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돌상 대여/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앤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광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곤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곤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한성식내과	978-854-6376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신경정신과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웨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톤컨스테다카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록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엑스	617-871-1482
퀸지소아치과	617-471-2184
손영권치과	978-459-0594
프록스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랜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Smart Dental	781-322-4914
ACTON 실험치	978-263-4592
기타	
메모리알병원(병리)	203-330-8080
문희아름 보청기	781-573-3277

보석

국제보석상	617-523-2553
메타판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보험

이윤환 보험	781-325-3406
조종은 종합보험	781-255-1134
베스트치초신한종합보험	617-782-8800
윤광현 생명보험	978-390-4738

비디오

나비스(촬영/편집)	617-756-5744
------------	--------------

부동산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속 신구가 앓던 '망막색소변성증'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 "한번 발생하면 치료 없이는 계속 상태가 악화되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와 관리가 중요"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을 통해 최근 관심이 높아진 '망막색소변성증'에 대해서 휴람 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 고자 한다.

◎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속 망막색소변성증 :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KBS 주말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100년 전통의 맞춤 양복점 '월계수 양복점'을 배경으로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남자들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며 사랑하고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다.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은 성실한 가장이자 양복 장인으로 살아온 사장 이만술(신구 분)이 어느 날 집을 떠나 옛사랑을 만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다니며 옷을 맞춰주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의 이런 돌연한 행동은 자신이 '망막색소변성증(Retinitis Pigmentosa)'을 앓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때문이었다.

◎ 자각증상 없어 조기발견이 어려운 실명성 질환 : 우리 눈의 망막은 눈에 들어온 빛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망막색소변성증은 이러한 망막시세포가 변성되며 망막의 기능이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질환이다.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망막의 발달과 연관된 여러가지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한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여기에 진행성 시기능 저하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연구되고 있으나, 뚜렷한 치료방법과 약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증과 함께 후천성 3대 실명 원인 중 하나이며, 가족 중 망막색소변성증이 있는 경우 유전 형태에 따라 우성, 열성, 반성 유전의 형태로 후대에 전달된다. 하지만 가족력이 없는 경우에도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대략 4,000~5,000명

중 1명에게서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야맹증과 같은 증상이 생기지만, 진행이 서서히 일어나므로 조기 발견이 어려운 편이다.

시력저하 증상으로 시작해 결국 실명 대표적인 자각증상으로는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는 야맹증과 시야가 좁아지는 시야 협착, 눈부심 등의 증상이다. 보통의 경우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움직이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점차 눈이 어둠에 적응해 주변 사물을 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망막색소변성증 환자는 어두운 곳에서 빛을 감지하는 시각세포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눈이 어둠에 계속 적응하지 못해 주변 사물을 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때문에 밤에 길을 걷다가 벽이나 기둥에 부딪치기도 하고, 증상이 심해지면 밤뿐 아니라 낮에도 밝은 빛에 눈이 쉽게 적응하지 못해 눈부심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기도 한다.

또 눈이 보이는 범위가 점점 좁아져 마치 눈가리개를 한 경주마처럼 시야의 변두리가 보이지 않는 터널시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자각증상이 시작되면 사물을 분간하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므로 야맹증으로 혼자 밤에 외출을 하는 것이 버거워지고, 눈이 부서 낮에도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진다. 병증이 더 진행돼 시야협착 증상이 나타나면 보이는 범위는 점점 줄어들다 결국 중심시력 손상으로 법적으로 실명상태(시력 0.02 이하)에 이르기도 한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초기 증상을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해 약국에서 약을 처방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망막색소변성증은 한번 발병하면 어떤 치료를 통해서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자각증상이 나타나면 그 즉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외선 차단용 선글라스 착용, 비타민A 등 복용 : 망막색소변성증은 한번 발생되면 치료 없이는 계속 상태가 악화되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병증을 알게 된 시점부터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하는지가 중요하다. 최근 줄기세포를 이용해 미성숙 시세포를 망막에 이식해 시력을 회복하거나, 망막에 전기적 자극을 가하는 인공망막 등의 치료법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로 완전한 치료법은 없는 상태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병의 증상이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눈 건강을 돕는 비타민A나 루테인, 안토시아닌 등의 항산화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며, 가능한 전자파를 멀리 하고, 자외선은 시력 손상을 일으키고 눈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오랜 시간 자외선에 눈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다. 선글라스 착용으로 눈부심을 감소시키고 빛이 산란되는 것을 줄여주면 빛과 어둠에 눈이 적응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유전적 소인 또한 주요한 발병 원인이기 때문에 가족 중 망막색소변성증 환자가 있다면 가족 모두가 안과 검진을 통해 일찍부터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좋다.

고국 방문 의료 상담 및 예약, 의료관광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 전화 617-955-911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카이로프랙틱이란?” : 우리 몸은 남녀노소 모두 31쌍의 척추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뇌로부터 이 신경을 통해 신호를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 즉, 교통사고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척추가 어긋나게 되면서 척추신경 압박 및 염증으로 뇌로부터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우리 몸에 통증과 같은 이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척추의 어긋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 가장 안전하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프랙틱입니다.

원장 : Dr. 유정호, D.C.
(Dr. Jeongho Yoo, D.C.)

- Graduated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Seminar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Methodology Institute
- Certified International Board of Extremity Chiropractors
- 한양대학교 졸업 및 ROTC 47기
- Active license in MA(#3524)

진료과목

- 척추계통 : 목 / 등 / 허리 / 골반 통증,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턱관절 통증
- 신경/순환 계통 : 손발 저림, 좌골신경통, 두통, 알러지, 소화불량
- 교통 사고 전문 치료 및 변호사 상담 :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효과 극대화 및 전문 변호사 연결
- 어린이/학생/성인 자세 관련 통증 및 척추측만 교정

진료시간

월-금(M-F) : 8am-5pm
토(Sat) : 9am-12pm
일(Sun) : Closed



개원기념 스페셜

- 카이로프랙틱 상담
- 정밀 척추 검사 \$20(reg.\$250)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요보험: 일반보험PPO, 학교/유학생/여행자
교통사고 보험 등 다수

Kingsman

THE GOLDEN CIRCLE



'킹스맨: 골든 서클' 태런 에저튼부터 할리베리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영화 '킹스맨: 골든 서클'이 영화에 대한 궁금증을 일으키는 이스터 에그시 15초 영상 및 최초 스틸 4종을 전격 공개했다.

이십세기폭스코리아는 19일 '킹스맨: 골든 서클'의 이스터 에그시 영상과 첫 공식 스틸컷 4종을 공개했다. 이스터 에그시 영상은 '킹스맨' 시리즈의 히어로 태런 에저튼이금일 오전 개인 트위터에 업로드하면서 공개 12시간도 되기 전에 1만 리트윗을 돌파, 전세계 예비 관객들에게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다. 그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포털 사이트 메인에 장식하고 실시간 검색어까지 등장되며 새로운 신드롬을 예고하고 있다.

통상 이스터 에그(Easter Egg) 영상은 제작자가 자신이 만든 제작물에 메시지 등을 숨겨놓고, 팬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이스터 에그시 영상은 영화 속 태런 에저튼의 캐릭터 명이 에그시임을 착안해 '킹스맨: 골든 서클' 측에서 내놓은 즐거운 이벤트이다. 태런 에저튼은 본인의 트위터에 "잠깐 맛만 봐, 여러분. MV(매튜 본)의 선물"이란 멘트와 함께 영화의 첫 번째 영상을 공개했다.

태런 에저튼 트위터에 공개된 영문 버전의 에그시 에그 영상과 함께 국내에서도 공개된 영상은 현란한 화면과 함께 영국 킹스맨 본부의 태런 에저튼과 마크 스트롱, 미국 스테이츠맨 본부의 채닝 테이텀, 그리고 최강 빌런으로 등장하는 포피(줄리안 무어) 등 배우들의 모습들과 액션이 짧게 담겼다. 전편의 열렬한 팬들이라면 짧은 영상 속에서도 단초가 될 스토리와 빠른 흐름 속에 담겨진 문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다른 의미의 카피가 숨겨져 있어 기대감을 더한다.

특히 국내 팬들은 이스터 에그시 영상이 공개된 태런 에저튼 트위터에 한국어로 "이번에도 진짜 재미있을 것 같다", "15초 안에 너무 많은 걸 담아서 슬로우 걸어서 봐야지!", "에그시 너무 반가워! 자세히 보면 해리도 나오나?" 등 태런 에저튼에게 근황과 기대감 멘트를 남겨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15초의 이스터 에그시 영상은 대한민국 및 전세계 SNS에 삼시간에 퍼지면서, 더욱 완벽하게 돌아온 스파이 액션 '킹스맨: 골든 서클'의 화려한 귀환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킹스맨: 골든 서클'의 최초 공개된 스틸컷은 영국 킹스맨 에그시의 멋진 주황 수트를 입은 모습 외에도 새로 합류한 미국 스테이츠맨들인 할리 베리, 채닝 테이텀, 제프 브리지스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된 '킹스맨: 골든 서클'은 전편을 능가하는 강력한 비주얼로 벌써부터 예비 관객들을 더욱 흥분시킬 것으로 보인다.

'킹스맨: 골든 서클'은 전세계 스파이 액션의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전복시킨 최초의 영화. 지난 2015년 개봉해 국내에서만 612만 관객을 돌파했고, 이후 전무후무한 팬덤을 일으키며 전세계적인 흥행 신드롬을 기록했다. 더불어 태런 에저튼이라는 신예 발굴부터 젠틀맨, 로맨스 가이로 사랑 받았던 콜린 퍼스를 단 한편의 영화를 통해 최고의 액션 배우로 기억하게 만든 바 있다. 이번 '킹스맨: 골든 서클'은 9월 27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다.

eujenej@news1.kr

'임금님의 사건수첩' 이선균X안재홍 '로코' 위협할 '군신 브로맨스'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배우 이선균과 안재홍이 코믹한 '브로맨스'를 예고했다. 두 사람이 보여주는 '케미스트리'는 로맨틱 코미디 못지 않았다.

이선균은 "편하게 하자, 하면서 편하게 호흡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둘 다 사극에서 허용하지 않았던 애드리브와 대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재밌게 하다보니 재홍이 특유의 표정이 나오고, 나도 재홍이 리액션이 재밌어서 좀 더 공격에 들어가니 재홍이 얼굴만 보면 웃음이 터져서 많은 NG가 나더라. 우정을 쌓게 됐다"라고 현장 분위기를 설명했다.

안재홍 역시 "나도 선배님이 잘생기고 미남이신데, 묘하게 웃긴 뭔가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선균 선배님 코미디를 좋아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곳에서 웃음이 터졌다. 애드리브는 거의 없었다. 현장에서 리허설을 하면서 만들어 나간 장면은 꽤 있었다. 너무 즐겁게 촬영했다"라고 밝혔다.

'임금님의 사건수첩'은 조선을 뒤흔든 괴소문의 정체를 파헤치는 임금 예종과 신입사관

윤이서의 모험을 그리는 코믹수사활극이다. 이선균이 예리한 추리력을 가진 예종 역을, 안재홍이 장원급제 출신 어리바리한 신입사관 윤이서 역을 맡아 콤비 플레이를 선보인다. 또 김희원이 속내를 알 수 없는 병조참판 남건희 역을 맡았다.

공개된 영화에서 이선균과 안재홍은 기존 캐릭터를 활용한 것만으로도 훌륭한 코미디 호흡을 보여준다. 다혈질 임금과 굼뜬 사관이 티격태격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고받는 호흡이 큰 웃음을 준다.

한편 문현성 감독은 "사극이지만 히어로 영화처럼 가면 어떻게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악당에 어떤 설정을 주는 게 좋을지 생각하다가, '007' 시리즈나 히어로물을 보면 요즘 악당들이 자본, 그쪽을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싸운다. 그런 면에서 자연스럽게 시사적인 면이 자연스럽게 녹았다"라고 영화가 표현한 시대상을 설명했다.

'임금님의 사건수첩'은 오는 26일 개봉한다. eujenej@news1.kr



'뭉쳐야 뜬다' 차태현표 복불복 여행에 매료된 김용만 외 3명

(서울=뉴스1스타) 이현주 기자 = 김용만 외 3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태현표 복불복에 중독됐다.

18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패키지로 세계일주-뭉쳐야 뜬다'에서는 '김용만 외 3인'과 게스트 차태현의 라오스 패키지 여행 모습이 이어졌다.

이날 멤버들은 라오스 관광을 하던 중 시내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7층 높이의 뼈뚜싸이 전망대에 오르게 됐다. 가이드는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설명하자 멤버들은 즉시 복불복을 통해 한 명만 올라가기로 결정했다.

첫 복불복의 결과 차태현이 패했다. 알고보니

이 복불복은 김용만 외 3명이 차태현 몰래 계락을 잔 것.

이 사실을 모르는 차태현은 "이제 복불복 게임 안 해야겠다. 잘못 걸렸다"며 7층 계단을 쉽게 올라가며 급격히 체력이 저하된 모습을 보였다.

전망대 구경에 이어 멤버들은 라오스의 지상 낙원 팡시 폭포를 찾았다. 팡시폭포를 마주한 이들은 에메랄드 빛을 뿜내는 팡시 폭포의 자태에 넋이 나가 감탄하기 바빴다.

이어 멤버들은 팡시 폭포에 입수해 물놀이를 즐기며 가지각색의 다이빙 실력을 뽐냈다.

coffeis79@new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7년 4월 10일 ~ 2017년 4월 16일

Nielsen Media TV 자사와 주간시청률

1	KBS1	일일연속극(빛나라은수)	27.8%
2	KBS2	주말연속극(아버지가이상해)	25.4%
3	KBS2	일일드라마(다시첫사랑)	20.8%
4	KBS1	KBS9시뉴스	17.7%
5	SBS	미운우리새끼다시쓰는육아일기	16.6%
6	SBS	월화드라마(갯속말)	14.9%
7	MBC	주말특별기획(아버님제가모실게요)	13.7%
8	MBC	월화특별기획(역적백성을훔친도적)	12.8%
9	MBC	주말드라마(당신은너무합니다)	12.1%
10	KBS2	해피선데이	11.6%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1	일일연속극(빛나라은수)
2	KBS2	주말연속극(아버지가이상해)
3	KBS2	일일드라마(다시첫사랑)
4	SBS	주말드라마(우리갑순이)
5	MBC	주말특별기획(아버님제가모실게요)
6	SBS	월화드라마(갯속말)
7	MBC	MBC아침드라마(언제나봄날)
8	SBS	아침연속극(아임쏘리강남구)
9	MBC	주말드라마(당신은너무합니다)
10	MBC	월화특별기획(역적백성을훔친도적)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사랑이 잘 (With 오혁)	아이유
02	밤편지	아이유
03	REALLY REALLY	WINNER
04	Marry Me	마크툽, 구윤희
05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하이라이트
06	She's a Baby	지코 (ZICO)
07	KNOCK KNOCK	TWICE
08	부담이 돼 (Feat. 휘인 Of 마마무)	정키
09	너란 봄 (Feat. 하림)	정은지
10	좋다고 말해	볼빨간사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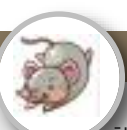
숫자 퍼즐 (Sudoku)

		9	8				6	
	3				4	2		
	6				1	8	9	
	8		7			4		
	1			2			7	
		5			6		1	
	5	8	4				3	
		6	2				4	
	4				3	9		

4월 23일 - 4월 29일

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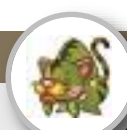
쥐띠 | 좋은 찬스가 주어지는

●운수:준비를 철저히 해둔 사람에게는 재앙도 비켜간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세요. ●금전: 안정된 운세로 수입이 증가합니다. 금전적으로 좋은 찬스가 주어지는 행운의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애정:따뜻한 말로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이유 불문하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주도록 하세요. 84, 72, 60, 48, 36년생은 23, 27일 길일. 25, 28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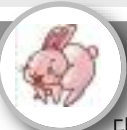
소띠 | 단단히 마무리 지어야

●운수:단단하게 매듭을 지어야 잘 끊어지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단단히 마무리 지어야 하겠습니다. ●금전:급하게 하는 행동은 이익을 손해로 바꿔놓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세요. ●애정:이제는 정말 끝내겠다는 결심을 했다가도 다시 흔들리면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4, 28일 길일. 23, 26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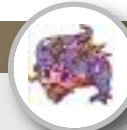
범띠 | 잠시 생각을 접어두도록

●운수:생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해결은 되지 않고 더 미궁에 빠집니다. 지금은 잠시 생각을 접어두도록 하세요. ●금전: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당장 이익이 되고 호박이 넘칠때 굴러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애정:다시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만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우와 예의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5, 29일 길일. 24, 27일 주의.



토끼띠 |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고

●운수:실내에 있기보다는 밖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건강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금전: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고 새로운 일을 만나게 됨으로써 수입이 늘어 나게 됩니다. ●애정:처음에는 그리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도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관계가 괜찮아질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6, 29일 길일. 25, 28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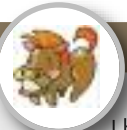
용띠 |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해서

●운수:약간의 무리로도 탈이 나기 쉽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라도 자신의 체력에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해서 해야 하겠습니다. ●금전:작은 돈은 들어오지만 큰돈이 나갈 일이 있습니다. 금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기기 쉽습니다. ●애정:헤어지는 것이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가 맞지 않은 사람에게는 차라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4, 27일 길일. 26, 29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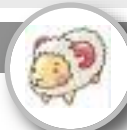
뱀띠 | 앞에서 끌어주고

●운수:가까운 곳에 있는 답을 두고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주위부터 살펴보세요. ●금전:가능성은 있으니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부단한 노력을 지속하면 이익이 따릅니다. ●애정:혼자서 가려고 하지 마세요. 힘든 길일수록 둘이서 함께 가는 이가 있어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5, 28일 길일. 27, 29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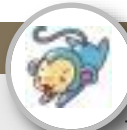
말띠 |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운수:단독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충분히 의논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없으면 없는 대로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살아야 합니다. 적게 가져서 마음이 더 가볍고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애정:모든 것은 만남에서 출발됩니다. 문제는 그 만남의 결과가 어디로 흘러가느냐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6, 29일 길일. 25, 28일 주의.



양띠 | 내 편을 들어주는

●운수:이 세상에 내편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드러내고 보이지 않아도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가까이 있습니다. ●금전:거래에 있어서 유리한 때입니다. 싸게 산 것을 이윤을 남기고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4, 25일 길일. 23, 29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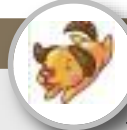
원숭이띠 | 사태파악을 제대로

●운수:어려운 벽에 부딪치게 됩니다.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후회가 물려올 것입니다. ●금전:좋은 물건을 보면 사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이 당연자입니다. 과소비를 할 수 있으니 아예 쇼핑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순간적인 감정으로 마음의 있는 말을 다했다가는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3, 29일 길일. 24, 28일 주의.



닭띠 | 두 배의 수익을

●운수:지금의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만 미래에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기를 거듭해오던 일들이 차츰 해결됩니다. ●금전:부지런하게 일한 것에 대가가 따라올 것입니다. 평소보다 두 배의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애정: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아름다워 보이고 그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4, 27일 길일. 25, 28일 주의.



개띠 | 병 주고 약주는

●운수:정신이 없이 일하다보니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세요. ●금전:문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처리에 있어서 꼼꼼하게 잘 살펴야 합니다.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애정:병 주고 약주는 격입니다.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가도 말 한마디에 다시 마음이 동하고 흔들립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5, 27일 길일. 23, 26일 주의.



돼지띠 | 전화위복의 상태로

●운수:부호랑이굴에 들어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듯이 위기가 오더라도 정신을 차리면 도리어 전화위복의 상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금전:너무 실리를 앞세우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융통성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애정:깨끗이 정리하자니 아직은 미련이 있고 계속해서 가지니 지푸 신경이 쓰이고 마음에 걸리니 고민만 깊어집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6, 29일 길일. 24, 27일 주의.

이효리, '효리네 민박'으로 사생활 침해 스트레스 극복할까

(서울=뉴스1스타) 이현주 기자
= 이효리가 새로운 예능 '효리네 민박'을 통해 컴백한다.

19일 복수의 연예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효리와 이상준은 JTBC 새 예능 '효리네 민박(가제)'에 출연한다.

'효리네 민박'은 이효리와 남편 이상준이 실제 거주지인 제주도에서 민박집을 열면서 누구든지 효리네 민박에서 무료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효리는 제주도 정착 후, 관광객 등 낯선 이들이 자신의 집을 자주 찾자, 사생활 침해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다.

결국 자신의 SNS에 "친애하는 제주도 관광객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집은 관광 코스가 아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울리는 초인종과 경보음으로 저희 모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많으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계속된 사생활 침해로



2016년 4월경 거처를 옮긴 바 있다.

그러한 이유로 이번 프로그램 목적이 더욱 눈길이 가는 수밖에 없다. 이효리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겪어왔던 사생활 침해 스트레스를 극복해낼 지 주목된다.

한편 금일(19일) '효리네 민박' 방송을 진행한다는 보도가 뜨자마자 누리꾼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기대감을 높였다.

coffeis79@news1.kr



설현 "통신사 화보 사진 보며 다이어트 자극"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설현이 다이어트 자극제로 자신의 리즈 시절 사진을 봤었다.

오는 20일 방송되는 KBS2 '해피투게더'는 '스개소(스타의 개를 소개합니다)' 특집으로 꾸며져 백일섭, 설현, 박준형, 토니안, 곽시양이 출연한다.

최근 녹화에서 설현은 완벽한 무보정 몸매를 유지하는 다이어트 비법을 공개했다. 그는 "제 사진을 보면서 다이어트 자극을 받는 편이다"며 몸매가 가장

좋았던 시절 사진을 보며 다이어트 욕구를 불태운다고 밝혔다. 설현은 공개와 동시에 핫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통신사 화보를 가장 자극되는 사진으로 뽑았다.

이와 함께 설현은 연습생 시절부터 김신영, 지민과 떠났던 베트남 여행기 등을 풀어냈다. 또 연습생 시절을 언급하면서 아무도 믿지 못할 이유로 쫓겨났던 일화까지 털어냈다.

ppbn@news1.kr

'라스' 오윤아 "노안 탓, 중학생때도 남자들이 따라다녀"

(서울=뉴스1스타) 윤정미 기자 = 배우 오윤아가 노안 때문에 20대의 나이에 30대로 오해받았다고 털어냈다. 19일 MBC '라디오스타'에선 악역특집이 방송됐다. 이날 오윤아는 노안 때문에 20대의 나이에 30대 중반 역할을 했다고 털어냈다.

심지어 친구로 출연한 예지원과는 10살 남짓 나이 차이가 났다는 것. 이에 다들 자신의 나이를 본래 나이보다 높게 보더라고 털어냈다. 또한 그녀는 노안 때문에 중학생 때부터 남자들이 따라다녔다고 밝혔다. 그녀는 "중학생 때 키가 167이었다"며

성숙한 여성으로 오해받았음을 언급했다. 이어 "그래서 치한이 뒤에서 끼어드는 일도 있었다. 어릴 때부터 빈번했던 일이라 화구통으로 치한을 난타하기도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galaxy98@news1.kr



천지보살

운명
사주
궁합
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티보플레이 4월 2째주 시청률 BEST10

1	KBS	빛나라 은수
2	KBS	아버지가 이상해
3	KBS	다시 첫사랑
4	SBS	우리 갑순이
5	MBC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6	SBS	귓속말
7	MBC	언제나 봄날
8	SBS	아임쏘리 강남구
9	MBC	당신은 너무합니다
10	MBC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티보플레이 4월 2째주 신규 방송

1	MBC	발칙한 동거
2	SBS	언니는 살아있다
3	SBS	주먹쥐고 뱃고동

티보플레이 금주 신규 영화

1	더 플랜	김어준
---	------	-----

'주먹쥐고 뱃고동' 김영광 · 경수진, 달달한 분위기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김영광, 경수진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보였다.

SBS '주먹쥐고 뱃고동' 제작진은 15일 첫 방송을 앞두고 티저 3탄 경수진X김영광 편을 공개했다.

영상 속 두 사람은 주어진 단어 중 하나를 외쳐야 하는 이구동성 퀴즈에서 동시에 사랑을 외치면서 달달한 분위기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후 경수진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영광이와 나는 뭔가 맞는 게 있구나"라고 말했다. 김영광 역시 "둘이 동갑이기도 하고 드라마 촬영을 함께 했을 때도 워낙 친하게 지냈다"고 했다.

배의 가장 높은 곳에서 일하는 김영광을 본 경수진은 "완전 상남자다"며 감탄했으며 김영광은 "진짜 예쁘다"는 말로 경수진을 활짝 미소 짓게 했다.

배 위에서 조업을 하던 경수진은 육중완에게 "드라마 촬영 당시 팬분들도 '둘이 실제로 사귀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곤 했다"고 털어놨다. 뒤이어 등장한 김영광은 불편한 작업복을 바로잡아달라는 듯 경수진에게 부탁을 했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챙기는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던 육중완은 "이러니까 사귀는 소리를 듣지"라고 말했다.

한편 '주먹쥐고 뱃고동'은 오는 15일 처음 방송된다.

ppbn@news1.kr

이번에도 막장?
장서희 · 오윤아 '언니는 살아있다'

(서울=뉴스1스타) 김민우 기자 = '막장 드라마'로 유명했던 '아내의 유혹' 콤비인 배우 장서희와 작가 김순옥이 9년만에 SBS 주말드라마 '언니는 살아있다'로 돌아온다.

'아내의 유혹'만큼 드라마를 통한 패러디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장서희는 "(김순옥 작가가) 이번에는 (막장이라 불리는 것을) 스스로 극복했다"며 "극중에서 '나 이런 막장드라마 안해'라는 대사도 나온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배우 변정수는 김순옥 작가의 예전 드라마를 보고 "미친거 아니야? 이게 말이 돼?"라고 생각했다"며 "빨려들어가는 막장 요소가 재밌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언니는 살아있다'는 상처받은 세 여자의 갱생기를 그렸다. 김순옥 작가가 집필했으며 장서희, 오윤아, 김주현, 다솜, 이지훈 등이 출연한다. 15일 오후 8시45분 첫 전파를 탄다.

suhhyerim777@news1.kr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공중파, 케이블, 최신 영화, 뮤직비디오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 콘텐츠를 모두 즐기는 The Best On-Demand, TBO

집에서 TV처럼 편하게 IPTV TBO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TBO 내 손 안의 미디어, TBO Touch (출시예정)까지 다양하게 즐기세요.

The Best OnDemand, tbo

1000만 대한민국을 사로잡아라!

"현명한 선택을 위한 정치 쇼"

THE MAYOR 특별 시민

최민식 | 광도원 | 심은경 | 문소리 | 라미란 | 류혜영 | 특별출연 이기홍
SHOWBOX presents WELL GO USA ENTERTAINMENT distribution

4월28일 대개봉

AMC Loews Boston Common 19

175 Tremont St, Boston, MA 02111

(617) 423-5801

상영관 정보 및 티켓 예매 | THEMAYOR-MOVIE.COM

[f FACEBOOK.COM/HITKMOVIE](https://www.facebook.com/HITKMOVIE)

신영의 세상 스케치

593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선택과 운명

삶이란,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롭다. 생각 하면 할수록 어찌 이리도 알록달록하고 울룩불룩한지 가끔은 즐거움에 행복해하다가 느닷없는 일 앞에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걷기도 한다. 때로는 나 자신의 일들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에 남의 탓을 하며 원망의 마음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며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그리 길지 않음을 깨닫는 나이가 되었다. 남을 탓하기보다는 나의 부족함을 들여다보며 조금은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것이다. 나만 바라보며 살던 좁은 삶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마주하고 나누는 또 하나의 세상을 맞본 까닭이다.

어린 시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원동이 늦둥이로 자란 나는 어린 마음에 늘 젊은 부모를 둔 아이를 부러워하며 자랐다. 가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동경 내지는 부러움이나, 샘, 질투 더 많은 단어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그 뜻을 몰라 그저 부러운 마음과 어린 마음에 샘만 가득했었다. 어른이 되어서 안 일이지만, 나 자신 스스로가 선택할 수 없는 일들은 삶 속에 수없이 많음을 겪고 경험하면서 알아차리는 것이다. 지금 생각하니 '선택

'은 어쩌면 이미 정해진 스스로의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어려서는 '운명'이란 말에 늘 거부하는 마음으로 있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렇다.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 서로 호감을 갖고 좋은 관계가 되었을 때 말이다. '선택'은 나 자신이 한 것 같은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면 '운명'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 가끔 '선택과 운명'에 대해 골똘히 생각에 잠기다 보면 참으로 신비롭고 오묘하다. '어떻게 내가 너를 만났을까?' 참으로 신기하지 않은가? 참으로 오묘하지 않은가? 모래알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너를 만났다는 사실은 신기한 일이지 한 없는 감사가 넘친다. 또한, 神의 존재에 대해 경외하는 마음이 절로 넘쳐 흐른다.

선택이란, 어쩌면 불공평한 일이라고 혼자 생각한 적이 있다. 선택이란 둘 이상의 대상 가운데서 필요하거나 접합한 대상을 가리켜 택하는 것이기에 말이다. 선택할 수 있는 입장과 선택할 수 없는 처지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 안에는 차별이 있음을 본다. 너무도 쉬이 넘기는 말이지만, 이 선택이란 것

에 상처받은 입장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좋은 부모 밑에서 풍요로운 가정생활과 환경으로 잘 자라온 사람이나, 어려운 가정환경과 불우한 생활 속에서 자란 사람은 둘 다 본인 스스로 선택한 길은 아니었을 것이다.

선택은 가진 자의 우선일지도 모른다.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일이다. 그렇다면 선택할 수 없는 입장은 선택을 당하는 입장인 약자가 되는 것이다. 선택을 기다리는 입장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에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 종속되는 것이다.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상대의 말에 따르며 기다리는 일밖에 또 무엇이 있을까. 때로는 자신의 주변 환경을 탓하면서 불만과 원망으로 산 날들도 허다하지만, 결국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자신에 대한 설움과 세상에 대한 울분과 비판만 늘고 만 것이다. 무엇을 바꿀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선택에 대한 아픈 상처보다는 운명에 대한 따뜻한 위로가 더 나올지도 모른다. 어쩌면 神(神)이란 존재는 작은 보잘것 없는 인간에게 '병 주고 약 주고 그리고 기

쁨과 행복'을 선물하는가 보다. 그래, 선택도 神(神)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운명도 인간에게 주신 神(神)의 섭리이리라. 하지만 혼자서 살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입장과 처지는 늘 그 한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선택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고 자학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작은 소망이 있다면 바른길에서 옳게 사는 일 뿐이다.

선택이든, 운명이든 간에 모두가 각자의 길에서 제 몫대로 흘러간다. 그 모든 것이 거스를 수 없는 물이라면, 막을 수 없는 물이라면 결 따라 흐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게 되면 또 '운명'일까. 운명에 모든 생을 맡겨버린 사람들에게 '선택과 운명'이 神(神)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쉬지 않고 운행하는 神의 섭리(우주의 섭리) 속에서 한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위로이고 희망이며 소망이고 꿈일 것이다. 지금의 어려움이, 슬픔이, 고통이 언제까지나 나의 몫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그것은 '운명'이라는 자리에 이미 '선택의 선물'을 주신 神(神)의 손길을 아는 까닭이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75 화랑세기花郎世紀, 6세 풍월주風月主 세종世宗(4)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태어났다. 그리고 딸 만호낭주도 낳았다(이 만호는 '개사건'으로 죽은 동륜태자와 결혼하여 만아들 김백정 - 후에 진평왕으로 즉위, 김백반, 김국반 등의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화랑세기에는 만호낭주가 지소의 침신 중의 하나인 4세 풍월주 이화랑과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남편인 입종은 일찍 사망하였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인 법흥왕의 명으로 마음에도 없는 박영실과 결혼하였다. 이 혼인에는 법흥왕의 정략이 보인다. 당시 신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중의 한명이 바로 박영실의 부인 옥진이였다(옥진은 화랑도의 1세 풍월주 위화랑과 후처인 오도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다). 옥진이 어릴때부터 그녀의 미모에 빠진 법흥왕은 결국 옥진을 후궁으로 불러드렸고, 이어 젊은 나이에 청상과부가 된 자신의 딸 지소를 박영실과 혼인시켰다. 옥진이 법흥왕의 후궁이 되기 전에 낳은 딸이 7세 때 진흥왕과 결혼한 사도왕후이다. 이때가 진흥왕의 즉위년이었으며 진흥왕 역시 7살이었다. 사도는 미실의 이모이기도 하며 대원신통의 인맥姻脈이기에, 진골정통의 대모인 지소태후는 사도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지소와 박영실 사이에는 황화공주와 송화공주가 태어났다.

그리고 또 지소는 태종(이사부)를 남편으로 맞았다. 그들 사이에서 아들 세종전군과 이차돈 그리고 딸 수명공주를 낳았다.

그리고 침신으로 있던 구진仇珍과의 사이에서 보명공주를 낳았다. 보명은 3대의 왕인 진흥왕과 진지왕 그리고 진평왕의 후궁으로 지냈다(미실도 같은 3명 왕의 후궁이었다).

이들 남편 외에도 지소는 이화랑을 비롯한 다수의 침신들이 이었다. 그리고 태어난 자식들의 연령대를 보면 지소태후는 여러 남자를 동시에 거느렸음을 볼 수 있다. 즉 신국神國의 신성神聖한 태후 지소는 지아비를 여러명 거느려도 문제가 없었으며 지아비의 신분과 관계없이 그녀의 소생들을 신화神化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록은 법흥왕이 비록 후궁이었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옥진을 신격화한데서도 볼 수 있다. 옥진이 후궁이 되기 전에는 골품이 없었다. 즉 성골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대원신통의 인맥으로 후궁이 되어 법흥왕과의 사이에서 비대전군을 낳아지만, 법흥왕의 뜻과는 달리 비대전군이 차기왕으로 즉위하지 못한 이유도 옥진의 신분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죽어서 신격화되었다. 법흥왕이 죽은 후 신궁에는 법흥왕과 옥진의 교신상交神象이 모셔져 있었다. 그리고 12세 풍월주 보리공주에 보면 하종이 신궁에 들어갈때 옥진의 신상에 먼저 참배했기에 보리가 하종에게 잘못이 아닌가 물었지만 하종은 "선제(법흥왕) 또한 말하기를 '억조창생이 짐을 신으로 섬기는데, 짐은 옥진을 신으로 여긴다' 라고 하였다" 라고

대답하였다. 법흥왕이 후궁 옥진에 대한 사랑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200) 540년 삼맥종이 7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고, 지소는 왕태후가 되었다. 처음 1여년간은 법흥왕의 비 보도왕후(태후)가 섭정을 하다가 541년부터 지소가 섭정을 하였다. 진흥왕은 재위12년째인 551년 1월에 연호를 '개국開國'으로 고치면서 그해 3월부터 친정을 하였다. 하지만 진흥왕이 친정을 한 후에도 지소의 권력은 막강하였다. 또한 구해공 등이 대리청정을 하기도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즉위한 540년 7월부터 541년 3월까지의 보도태후가 섭정을 하였고 541년 3월부터 551년 3월까지 10년간은 어머니 지소태후가 섭정을 하였으며, 551년 3월부터 559년 3월까지 친정을 하였다. 559년 3월부터 563년 3월까지 상대등 구해공이 대리청정을 하였고, 563년 3월부터 575년 12월까지 다시 친정을 하였다. 그리고 575년 12월부터 576년 3월까지 왕비 사도왕후 박씨가 대리청정을 하였고, 576년 3월부터 한달간 잠시 미실공주가 대리청정을 하였으며, 그 후 576년 8월 봉어(왕의 죽음)할 때까지 둘째아들 김사륜(후에 진지왕)이 태자의 신분으로 대리청정을 하였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Prime Motor Group

A new kind of car buying experience.



Prime MOTOR GROUP

HYUNDAI

A new kind of car buying experience



2017 Hyundai Elantra SE

This vehicle features:
3.5-inch Segment LCD Cluster Display,
AM/FM/XM radio

FWD, Automatic, HQ11289

LEASE
\$69/mo.

PURCHASE
\$15,631

FINANCE
0.9% APR

2016 Hyundai Elantra SE

This vehicle features:
Advanced safety technology with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FWD, Manual, HQ11603

LEASE
\$89/mo.

PURCHASE
\$13,290

FINANCE
0% APR

2016 Hyundai Accent GLS Sedan

This vehicle features:
Bluetooth, Heated Mirrors, Sirius XM
Radio, Power Windows/Locks,
Remote Keyless Entry

FWD, Automatic, HQ11525

LEASE
\$119/mo.

PURCHASE
\$12,798

FINANCE
0% APR

2017 Genesis G80 3.8

This vehicle features:
Premium Pkg, Blindspot detection,
Rear cross traffic alert, HTRAC AWD

AWD, Automatic, HQ11680

LEASE
\$419/mo.

PURCHASE
\$45,500

FINANCE
1.9% APR

2017 Hyundai Santa Fe Sport

This vehicle features:
Back-up camera, Apple Carplay, Android
Auto, Bluetooth Hands Free, Fog Lights

AWD, Automatic, HQ11629

LEASE
\$129/mo.

PURCHASE
\$23,527

FINANCE
0.9% APR

2017 Hyundai Tucson SE

This vehicle features:
Drivers Blind Spot Mirror, 5 inch
Color Touchscreen Audio,
Rearview camera

FWD, Automatic, HQ11289

LEASE
\$175/mo.

PURCHASE
\$20,248

FINANCE
0% APR

2017 Hyundai Sonata SE

This vehicle features:
Rearview Camera, 16" Alloy Wheels,
Bluetooth, Sirius XM

FWD, Automatic, HQ11830

LEASE
\$129/mo.

PURCHASE
\$18,197

FINANCE
0% APR

2017 Hyundai Santa Fe SE

This vehicle features:
Back-up camera, Apple Carplay, Android
Auto, Bluetooth Hands Free, Fog Lights

AWD, Automatic, HQ11442

LEASE
\$189/mo.

PURCHASE
\$29,003

FINANCE
0% APR

한국인 딜러



Earl Ko 고열
Authorized Hyundai Dealer
617.755.6941

"Leases exclude tax, title, acquisition fee. 10k miles per year. *All qualified rebates to dealer. **Must take delivery same day from dealer stock. PURCHASE OFFER – Price includes Valued Owner or Competitive Owner Coupon, Military Rebate, College Grad Cash, Flex Coupon (1) Prime Cash Discount available to all customers. (2) Retail bonus cash available on select Hyundai models purchased from dealer stock and financed through HMLT by 10/31/2016. Customers who participate in a Special Lease or Low APR program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HMF) do not qualify for Retail Bonus Cash. *** With approved credit only. FINANCE: Available to qualified applicants, not all will qualify.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1.9% APR for 60 months is 60 monthly payments of \$17.48 for every \$1,000 borrowed. All offers expire 10/31/2016."



Prime Hyundai South

1022 Hingham St. Rockland MA 02370

PrimeHyundaiSouth.com



한담객설閑談客說: 봄날은 간다-Ⅲ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몇해전 보스톤코리아에 봄날은 간다를 실었다. 이번엔 3편을 실는다. 오늘은 가요 봄날은 간다 3절이다. 백설희표 노래가 삼삼하다. 그런데, 이 노래는 누가 불러도 알맞다.

열아홉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도 양가슴 두드리며
뜬구름 흘러가는 신작로길에
새가 날면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알곶은 그 노래에 봄날은 간다.
(봄날은 간다. 3절)

이팔 청춘이라 했다. 알고보니, 이팔은 십육에 16살 즈음이라는 말이다. 이걸 분명 소녀들에게 붙여진 말일게다. 사내나이 16살이면 아직 청소년이지 싶어 하는 말이다. 남자에게 한창 나이는 19살 즈음이라 해야겠다.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을듯 근질거릴 나이인 게다.

봄날은 나른하다. 내게 그해 봄은 나른하기는 커녕 마냥 바빴다. 오히려 정신 없었다. 촌에서 올라온 까까머리 총각은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느라 살이 쏙 빠졌다. 빼적 말라가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걱정을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애써 모른척 했다.

안톤 슈낙이다. '술한 세월이 흐른 후에,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의 편지가 발견될 때. 그곳에 씌었으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너의 소행所行이 내게 얼마나 많은 불면不眠의 밤을 가져오게 했는가……." 대체 나의 소행이란 무엇이 었던가? 혹은 하나의 허언虛言, 혹은 하나의 치희稚戲, 이제는 벌써 그 많은 죄상을 기억 속에 찾을 수가 없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중에서) 내게도 19살 그해 봄날은 손살 같이 지나갔다. 세월과 경주競走하는양 빠르게 움직였던 거다. 여름은 득달같이 들어 닥쳤다. 그리움이 뭔지,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알려면 한참 더 세월을 먹어치워야 했다.

'사랑아, 그리운 것은 꽃으로 다시 핀다는 것을 알기까지 45년이나 걸렸다.' (시인 김인옥) 그리운 걸 알아내는데 반세기가 걸렸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요,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 했던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핀 꽃이 질 것이다. 올봄, 한국에서는 십년권력도 덤으로 데려갈 모양이다. 역시 봄날은 알맞기만 하다. 화려했던 봄날은 간다.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나…’ (찬송가 371장)

1. 이 글은 옛적에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도 실렸더랬다.

독자에게 드리는 답장

사월입니다. 드디어 목련꽃이 터졌습니다. 보내주신 베르테르의 편지는 감사히 받았습니다.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 읽노라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를 부노라
...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어린 무지개 계절아
(사월의 노래, 박목월 작사 김순애 곡)

급한 마음에 먼저 더듬어 읽었습니다. 훑고 읽어 내려 갈적에 콧등이 시큰했고요. 되돌아 온 감동이 더 짙었던 겁니다. 역감동逆感動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렸을 독자님은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또 얼마나 상심이 크셨겠습니까. 더 어렸을 동생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얼마나 무서웠을 건가. 얼마나 울었을 건가. 독자님이나 동생이나 모두 큰일을 겪기에는 너무 어렸을 테니 말입니다. 어머니가 기둥이었었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 싶었을 테지요.

답례라 하기엔 쑥스럽습니다. 사진을 베낀 그림을 같이 보냅니다. 너나 없이 모두 어려움을 적입니다. 어머니와 누나와 젓먹이 남동생이 나옵니다. 어머니는 한창

일하는 중이었을 겁니다. 아이에게 혹시 뭐 더러운 것이라도 달을까 어머니는 뒷손입니다. 배고팠던 아이는 젓을 먹고요. 어린 누나는 동생을 업고 있습니다. 아이 무게에 누나 허리는 앞으로 잔뜩 굽혀 졌고요. 못먹어 다리는 하냥 가늘기만 합니다. 누나도 한창 뛰어놀아야 하는 나이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만 하겠습니까. 하지만 누나나 언니의 사랑도 봄날처럼 서럽게 따듯합니다.

과찬의 말씀에 얼굴마져 화끈했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었고요. 익숙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족입니다. 굵은 활자에 박힌 이름 석자가 낯설었습니다. 분명 보스톤코리아 정 기자가 뽑은 타이틀 일겁니다. 기자記者는 이따금 이렇듯 읽는이를 당황케 합니다.

봄이 오긴 왔습니다. 개나리도 목빠지게 기다렸던 모양입니다. 우리집 뒷마당에도 활짝 폈습니다. 덩달아 철쭉꽃도 고개를 내밀었고요. 오가며 스치는 목련도 빼꼼하더군요. 진해鎭海는 벚꽃이지요. 이 봄, 벚꽃과 어울려 아지랑이는 헛것처럼 마냥 하늘거릴 겁니다. 환절기입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

김화옥 드림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 안내

“우리의 가슴 속에는 고요하고 맑으며 밝은 문이 있는가 하면 번거롭고 혼탁하여 어두운 문이 있습니다. 어떤 문을 열고 닫으며 살아야 하는지는 자신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후회스러웠던 일들은 가슴 밖으로 내보내고 다시 각성해서 새로운 창을 열어야 합니다.”

- 문수사 회주 도범 스님, “구도자의 발자취” 중에서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억가탄신일

봉축법회: 불기 2561년 (2017년) 4월 30일 일요일

제1부 오전 11시: 봉축 법회

제2부: 관불의식

제3부: 오후 3시 수계식

재가 불자로서 오계의 가치를 지키며 살겠다는 맹세를 하는 의식입니다. 불명이 있으신 분도 새롭게 계를 받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주지스님께 미리 신청 바랍니다.

장소: 문수사 큰법당, 231 Salem Street, Wakefield, MA 01880

문의: (781) 224-0670, (781) 439-8383

* 연등접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지 스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781) 439-8383 입니다.

* 행사 당일 라이드가 필요하시면 문수사로 연락바랍니다.

* 찾아오시는 길: I-95 North Exit 42로 나오신 후, 바로 Salem St으로 우회전, 약 150 미터 전방에서 Gst station의 왼쪽길로 직진후 약 200미터를 더 오시면 갈라지는 길에서 오른쪽에 문수사 표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I-95 South Exit 42로 나오실때는 Exit 직후 좌회전하신뒤 Salem St에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문수사는 모든분께 열려있습니다.

정기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00시, 요가: 화/목요일 저녁 7:30-9:00시





重 (중)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重)한 바 의(義)와 인(仁)과 신(信)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Woe to you, teachers of the law and Pharisees, you hypocrites! You give a tenth of your spices—mint, dill and cumin. But you have neglected the more important matters of the law—justice, mercy and faithfulness. You should have practiced the latter, without neglecting the former. - 마태복음 23:23

20일 TV 조선 보도에 따르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방문 조사 때마다 억울함을 토로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에서 검찰로부터 5번의 방문조사를 받는 동안 항상 억울함을 털어놓고 눈시울을 붉혔다.

변호인 유명하 변호사가 매일 접견을 가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생활에 적응을 못해 육체적으로 쇠약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3월 21일 첫 검찰 소환조사를 때는 격분하며 눈물을 쏟아 조사가 30분 가량 중단되기도 했었고 3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서도 15분가량 최후 변론을 하며 눈물을 쏟기도 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한 적이 없고 뇌물 혐의는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법과 죄의 망"을 법으로 만들어 씌웠다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소연. 눈물과 한숨 밖엔 몸을 쥐어짜도 나올 것이 없다는 것!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18일 "다음 세탁기에 들어갈 차례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될 수도 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선거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수수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홍 후보는 "(노 전 대통령)과 문후보가 형제보다 더 친한 관계라 하고 대통령과 비서실장 사이로 딱 붙어 있었는데 그것(\$640만 뇌물)을 의논하지 않았겠냐"며 한국당은 이날 노 전 대통령 \$640만 뇌물수수 사건 수사 재개 촉구 서한을 검찰에 촉구하기로 했다

다.

정준길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사 기록은 영구 보존돼 있고 공소 시효도 남았으니 검찰 수사를 요청한다"며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더 못하고 급한 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수석의 말이라며 '한국은 중국의 일부'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많은 터무니없는 발언과 말 뒤집기에 묻혀 큰 관심을 못 받았지만 한국에선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19일 워싱턴 포스트(WP)지가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6-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라고 말했다는 보도와 관련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제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피했다.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한국 정부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는 질문에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한국 국민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陸(루) 대변인은 시 주석의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해주지 않은 채 "미중 정상이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정상 회담을 했을 때 한반도 문제에 대해 매우 깊이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으며 관련 상황은 이미 제때 발표했

다"고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 당시 북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시 주석에 따르면)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당시 WSJ 보도에는 없었지만, 미국 온라인 매체(Quarty)가 19일 인터뷰 발췌 본을 인용해 추가 보도하는 과정에서 공개됐다.

급하고 중요한 것은 20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뽑는 선거다.

각 후보들은 무엇, 무엇 해주겠다는 공약 행진을 이어갔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부당한 강제퇴직 방지법을 만든다는 등의 '50/60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노총을 찾아 "비정규직을 대폭 줄이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높여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후보가 기초연금은 올리고 아동수당을 도입한다는 등..... 수조 수십조(兆)원이 들어야 하는 복지공약을 하루가 멀다며 쏟아내면서 나라의 미래와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있어야 할 정책에는 입을 다문다.

입만 열면 "해 준다", "해 준다" 뿐이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세계는 벌써 천국이 됐을 텐데.....

지금 경제를 살리려고 지속가능한 중요한 것은 구조개혁이다. 어떻게?

重중: 經之對 경지대. 무거운 중.

이 글자를 上中下(상중하)로 나누어 보면 ① 위부분은 千(천: 1백이 10배로 1,000): 千은 丿: 하나님의 숨결인 丿=좌인자 빠짐 별: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生靈)이 되니라: Then the LORD God

formed a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 창세기 2:7

② 田전: 耕地 밭전: 네모진 땅 안에 십자가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증: 또 자기 십(십자가)을 지고 나(예수 그리스도)를 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and anyone who does not take up his cross(十) and follow Me is not worthy of Me. Whoever finds their life will lose it, and whoever loses their life for my sake will find it. - 마태복음 10:38, 39.

하늘나라는 예수그리스도의 십자 ID - 즉 이웃 사랑(一) 하나님 사랑(一) = 十. 까닭에 모든 사람의 十에 자기 인생이 얼마나 담겼느냐의 결과가 田의 크기를 결정케 된다.

③ 土 - '흙 토' 는 십자사랑의 크기에 따라 크기가 좌우된다.

아무리 화려하고 훌륭하게 살아도 삶이 십자사랑과 맺어지지 않고 자기 자신의 영광에만 또는 자기 기쁨에만 쏟아진 삶이면 十 모양이 보이지 않을 것.

흙(土)으로 지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세상 떠날 때 十로 남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 이 없다면 ①의 千과 ②田에 못 미치는 슬픈 ③ 흙덩어리(土)로 주 예수님의 나라 - 天國(천국)과는 상관없이 사람들과 온갖 발길에 걸려 채이고 밟히는 땅의 폐물로 남을 수밖에.....

하늘가는 밝은 길이..... 내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삶이시길.....

HANKOOK AUTOBODY INC.

978.664.2321

한국말 문의 전화 가능!!

- * 무료 견적서
- * Auto body 사고 수리 및 페인트
- * Insurance 수리 및 Deductible 세이브
- * 프레임 스트레이너 머신 및 페인부스 완비

126 Main St. North Reading

한국 오토바디샵
11월 14일
GRAND OP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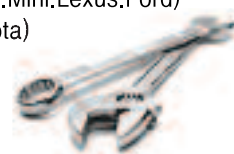


영업 시간

M-F: 8:00~5:00
SAT: 8:00~12:00

- 경력 -

- * 현대 자동차 서비스 공채 사원(대방동 남부 사업소 판금 도장부 근무)
- * Herb chamber 브레이크리 콜리슨 센터 근무(M-benz, Bmw, Mini, Lexus, Ford)
- * Bernadi Boston body shop 근무 (Honda, Acura, Audi, Toyota)
- * Tansky Toyota 근무 (모든 Toyota 차량)
- * Calvin's auto body 운영
26년 Auto body work!!



126 Main St. Unit 10, North Reading MA 01864

Tel: 978.664.2321, Fax: 978.664.2314
E-mail: autobody.hk@gmail.com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당신의 가장 현명한 선택

오엘 성형외과

성형 전문의의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1:1 고객맞춤형 시술&수술 진행

- **토털 케어 시스템** 오엘성형외과에 오신 지점부터 상담, 수술계획, 마취, 수술, 회복관리까지 공평한 상담, 정확한 진단으로 만족도 높은 진료가 가능합니다.
- **안전함이 최우선인 진료** 대리수술 NCR 대표원장이 직접 수술하는 정직한 진료를 지향합니다. 이것은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오엘의 약속입니다.
- **새로운 수술법 연구** 꾸준한 연구 활동으로 새로운 수술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프렌드인 미국 성형의 최신 정보를 받아들이며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품격 있는 의료서비스** 병원과 환자와의 인간적인 관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평생고객서비스를 통해 모든 환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직한 진료** 개별적인 관찰과 탐구를 통해 개인별 맞춤 디자인과 치료계획을 세워 불필요한 수술을 권유하지 않는 정직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엘 성형외과 휴람이벤트]

눈·코

상안검	170만원 → 150만원
눈썹허가상	170만원 → 150만원
하안검	170만원 → 150만원
하안검+눈썹지방재배치	250만원 → 170만원
명품 코(귀연골+실리콘)	240만원 → 220만원

안면거상

물매이스 리프팅	800만원 → 500만원
관자+염불+목리프팅	800만원 → 600만원

이물질제거

입술(입대)	300만원 → 240만원
미간	300만원 → 240만원
부분	300만원 → 240만원
코	300만원 → 240만원
팔자	400만원 → 320만원
이마	400만원 → 320만원
가슴	800만원 → 640만원

모발이식

여성 헤어라인 1,000모	→ 100만원
여성 헤어라인 2,000모	→ 200만원
남성 모발이식 3,000모	→ 350만원
남성 모발이식 4,000모	→ 450만원
남성 모발이식 5,000모	→ 550만원

부가세 관련 정보

2016년 4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외국인이 성형, 미용목적으로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진행할 경우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출국전에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원 대표원장

- [학력]
- (현) 오엘성형외과 대표원장
 - Henry Hindle Middle School
 - Lawrence Sheriff Grammar School, Rugby, England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졸업
 - 의학박사, 성형외과 전문의
- [경력]
- 삼성의료원, 삼성제임병원 인턴 수료
 - Matsuyama Cosmetic Surgery Center 부원장 역임
 - 한일병원 화상외과 연구소, 성형외과 과장 역임
 - Cheng Gung 병원 두개안면기형 연수
 - Beverly Hills, Camden Surgery Center 연수
 - Juve Aesthetic Surgery Center 대표원장 역임
 - 아름다운 성형외과 원장 역임



해외의료사업팀장 ★ 무료 전화(Call for Free) ★
김수남 1-844-DO HURAM (1-844-364-8726)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aram.kr / www.huramkorea.com

미국내 상담문의
보스톤코리아
Tel. 617-955-9112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82)

뮤추얼 펀드에 투자해야 하나?

2017년 4월 13일 월스트리트 신문 일면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은 “인덱스 펀드가 지난 15년 동안에도 수익률이 뮤추얼 펀드보다 높았다. (Indexes Beat Stock Pickers Even Over 15 Years, April 13, 2017, WSJ)” 라는 내용입니다.

펀드 투자종목에는 크게 나누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펀드 매니저가 여러 회사 주식을 직접 선택해서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주식시장 지수(Index)를 따라서 즉 펀드 매니저가 없이 운용되는 인덱스 펀드입니다.

투자하는 방법에 따라서 액티브 투자 (Active Investment)와 패시브 투자 (Passive Investment)로 구분해서도 말합니다. 뮤추얼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회사 주식을 선별하여 투자하므로 액티브 투자라고 말하며 펀드 매니저 없이 미리 선정된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패시브 투자라고 합니다.

뮤추얼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유망하다고 전망하는 회사

주식에 투자합니다. 일반적으로 펀드 매니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선별가(Stock Analyst)의 의견을 종합하여 투자 결정을 합니다. 인덱스 펀드는 회사 규모에 의해서 이미 선정되어 있으므로 펀드 매니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예로 S&P 500은 미국 500대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500개 회사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회사는 투자하지 않고 수익률이 높을 회사만 선정해서 투자한다는 것이 뮤추얼 펀드 투자입니다. 문득 생각하면 정보력도 많고 투자 돈도 풍부한 뮤추얼 펀드가 회사를 잘 선정해서 투자하기에 수익률도 인덱스 펀드보다 분명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실제 통계가 보여줍니다.

과거 5년 동안 대기업에 투자한 뮤추얼 펀드의 수익률이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더 높았던 뮤추얼 펀드는 단 12%였다는 결과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못했던 뮤추얼 펀드가 무

려 88%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난 5년에만 있었던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인덱스 펀드보다 수익률이 저조했던 뮤추얼 펀드는 85% 그리고 15년 동안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뒤떨어졌던 뮤추얼 펀드는 무려 92%라는 사실을 월스트리트 신문이 발표한 것입니다.

이런 저조한 수익률 때문에 2007년부터 뮤추얼 펀드에서 빠져나온 돈의 액수가 \$1.2 trillion이 되며 거의 같은 액수인 \$1.1 trillion이 인덱스 펀드로 투자되었습니다.

* 참고로 \$1 trillion은 \$1,000 billion이며 \$1 billion은 \$1,000 million이라는 큰돈입니다.

일반 투자자를 도와주는 재정설계사 대부분은 고객의 자산을 뮤추얼 펀드에 투자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뮤추얼 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도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높은 확률이 희박한 데 재정설계사는 그 많은 뮤추얼 펀드에서 어떤 펀드가 주식시

장 수익률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선별하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사실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이유 대부분은 재정설계사가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변화를 싫어하기에 무엇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며 결과가 달라질 것을 기대한다면 이것은 정신이 나간 거와 같다. (One definition of insanity is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and expecting different results.)” 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필자 회사의 모든 고객(Client) 포트폴리오는 인덱스 펀드와 같은 ETF 종목을 이용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평균 투자 경비가 단 0.1%이기에 주식시장에서 나온 수익률을 거의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덱스 펀드나 ETF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서 운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한인 교포들을 위한 투자 지침서

이명덕 박사의

미국에서 부자되기

백만장자(Millionaire)란
우리과 거리가 먼 판세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하는 한국인들은
모두 다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입 문의:

617.955.9112

bostonkorean@hotmail.com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 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미국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위한 한국의 종합소득신고 안내(1) -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의 한국세금

미국영주권자인 김한국씨는 한국에서 상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김한국씨는 상가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이번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한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세금신고를 하나요?

한국의 5월은 종합소득신고의 달입니다. 한국의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2016년도 소득 중 합산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그 소득을 2017년 5월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한국의 소득 중 종합과세 되는 소득(예를 들면, 임대소득)이 있다면 한국의 세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주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한국내 소득이 한국과 미국에서 어떻게 과세되는지를 살펴보고, 다음주부터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한국의 소득 중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미국의 세법과 조세조약

한국과 미국에서의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과세근거가 되는 한국 세법, 미국세법 및 한미조세조약과 그들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위 김한국씨의 임대소득을 예로 들어 한국과 미국에서의 과세여부를 설명해 봅니다.

한국은 김한국씨의 임대소득이 한국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김한국씨가 미국의 거주자라는 이유로 그의 한국임대소득 대해 과세합니다. 이렇게 되면 김한국씨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한국과 미국 두 국가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에서 발생한 미국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반대로,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거주자의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지)를 정하고, 만약 양 국가에서 모두 과세되면 이중과세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한미조세조약은 ①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그 소득이 어느 나라에서 발생한 것인지를(소득원천지국) 결정하고, ②그 구분된 소득 별로 소득이 발생한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소득에 대해 양국에서 동시에 과세되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에서 반드시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해두도록 강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과세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과세권이 배제되는 것이 아님

그러나 조세조약은 한국에게 미국거주자의 한국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부여하였다하여 미국의 미국거주자에 대한 과세권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조세조약은 김한국씨의 한국내 임대소득에 대해 한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정했을 뿐, 그의 거주지국인 미국에게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은 여전히 자국의 세법에 의해 미국거주자인 김한국씨의 한국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김한국씨의 미국 세금 계산시 반드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한편, 한미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해 어느나라에서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만,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각각 자국의 세법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조세조약이 우선적용됨

한국에서는 조세조약이 특별법의 위치에 있어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이는 조세조약과 한국세법의 규정이 서로 다르면 조세조약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한국세법에 미국거주자의 한국내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도, 한미조세조약이 한국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국은 그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습니다. 반면, 조세조약이 미국거주자의 한국내 소득에 대해 한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더라도 한국세법에 그

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이 없다면 그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국 미국거주자의 한국내 소득에 대한 한국에서의 과세는 조세조약에 의해 소득발생지국인 한국에 과세권이 있고, 또한 한국의 세법에도 과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를 토대로 김한국씨의 부동산임대소득이 한국에서 과세되는지를 보면,

첫째: 한미조세조약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그 부동산소재지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한국의 소득세법에서도 비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한국의 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김한국씨의 상가임대소득은 조세조약 및 한국의 소득세법에 의해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이때 구체적인 과세 방법은 한국세법에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미조세조약 및 한국의 세법에 따라 김한국씨의 상가임대소득이 한국에서 과세되었다 하여 이에 대한 미국의 과세권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한국씨는 미국세법에 따라 한국에서 발생한 상가임대소득을 미국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미국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김한국씨는 미국의 세금 계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에서 낸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받게 됩니다.

※ 5월은 한국의 종합소득신고의 달입니다!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제휴법인

호연회계법인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tomwlee1125@gmail.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내 눈에 행복

36년 전에 마이애미로 처음으로 이주했을 때, 미리 이주해 온 지인에게 몇가지 조언을 들은 기억이 난다. 그 내용들이 나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동안 지탱해 온 나의 사고관에 인지시키기 위해 힘이 들었던것 같다.

'여자와 우산을 같이 쓰지 마라'

비에 흠뻑 젖더라도 우산을 같이 쓰면 '레스비언'이라는 오해를 살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우산을 같이 안 쓰거나, 안 쓰려고 하면 인간성이 비열한 사람으로 인식되는데 비해, 이곳에서는 다른 뜻으로 인식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타인의 행동에 무관심 해라'였다. 그 당시 영연방에서는 홍콩의 중국반환을 앞두고 홍콩의 자본 흡수를 위해 투자이민을 개방했다. 이로 인해 홍콩 출신 고등학생이 최고급 승용차로 등하교 하는 것이 종종 목격되었다. 백인 선생님이 15년된 소형차를 몰고 주차하고 그 옆에 BMW 750 은 새로운 홍콩학생이 주차한다. 그래도 누구하나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다.

상대방의 성공은 상대방의 가치기준이

고 나의 성공은 나의 가치기준이다. 나의 성공기준이 '가족과 기쁘게 사는것'이라면 가족과 기쁘게 사는 동안은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간단한 일이다. 문제는 나의 성공기준이 타인에게 영향을 받으면 복잡해지고 불행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공을 '남들에게 존경 받고 인정 받는 것'에 목표를 둔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매일 실적보고서를 연구해서 오늘은 누가 1등이고 자신이 몇등을 했나 분석했다.

1등을 하기위해서는 누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누가 해가 될 수 있나를 연구했다. 결국 1등을 유지 했을 때는 행복했었는데, 1등에서 떨어졌을 때는 불만으로 가득찼다. 하지만 1등을 유지하는 날보다는 1등이 아닌 날이 더 많은 인생에서 그는 불만족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에서는 1등을 했다고 더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친구가 1등을 했을 때도, 1등이 아니었을 때도, 회사동료들은 늘 같은 정도 만큼 이 친구를 존경했다는 것이다.

타인을 의식하면 타인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된다. 데레사 수녀나 슈바이처 박사처럼

타인들을 위해서 사는데 행복을 느끼지 못 한다면, 타인들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어릴적부터 1등을 강요 당했다. 내가 10등을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고 무한경쟁의 사회였기에 오직 1등만이 사회적 안정이 보장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내가 1등이 아니면 부모들은 '너희 학교 1등은 누구니?'

'그 부모는 좋겠다...'

'너는 왜 1등 못하는데...' 그래서 엄친아라는 단어도 생긴것 같다.

다행히도 우리는 1등 주의가 필요없는 미국사회에 산다. 꼭 1등을 안 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사회이다.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 부터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사회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룰루랄라 행복을 챙겨서 출근준비를 한다. 실적이 저조하다고 비지니스 파트너가 근심스런 표정으로 다가오면, 'It's going to be alright buddy' 하고 말해 줄 수 있다.

내가 한국 손님들에게 항상 말씀 드리는 게 있다. 여기는 한국이 아닙니다. 미국에

오셨으면 미국법을 따르셔야 합니다.

본인이 왜 미국에 집을 사야 하는지 한국을 떠나 미국까지 왔으면 가장 중요한 목적은 행복 일 것이다. 여러분에게 행복할 집을 찾아 드리는게 나의 일이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이민법]

H-1B가 다가 아니다, 왜 영주권은 고려하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이민국은 지난 11일 추첨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추첨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H-1B 대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기존 칼럼들을 통해 H-1B의 대안이 될 수 있는 O비자, E비자 등 다른 옵션들에 대한 안내를 해 왔습니다.

H-1B 대안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취업 영주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H-1B로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F-1은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취업 영주권은 H-1B로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해야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도 없으며 F-1이어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H-1B의 가장 확실한 대안은 취업 영주권입니다.

취업 영주권 신청은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신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심지어, 수혜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생(F-1)이건 비이민투자자 혹은 그 부양가족(E-2)이건 심지어 학생 부양가족(F-2)의 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취

업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이 되면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이 됩니다.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다가 더 이상 신분 유지가 부담스러워 해외로 나가는 경우에도 승인시 영주권 인터뷰를 보고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이 H-1B 추첨에서 떨어진 직원에 대해 취업 영주권을 꺼리는 이유는 취업 영주권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서 해당 직원에게 장기 휴가를 줘야 한다는 선입견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바로 일을 할 직원이 필요한데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그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회사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경우 3순위 취업 영주권이 4-5년씩 걸리기도 하였지만 최근에는 1년 안팎으로 속도가 많이 빨라졌습니다.

더구나 만약 STEM전공이라면 STEM으로 OPT를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빈 기간 없이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부 학교의 경우 F-1에게 CPT나 OPT 라는 일시적 조건부 취업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주

권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서 접수로 체류 신분과 상관 없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EAD 카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업무에 복귀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일부 절차를 함께 진행하여 영주권 진행 속도 자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회사 입장에서는 유능한 직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H-1B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작년 H-1B 추첨에서 떨어진 저희 고객들 중 일부는 회사와 영주권 옵션에 대해 상의를 하였고 올해 H-1B를 신청하는 대신 영주권 절차를 밟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현재 영주권 케이스가 마무리 되었거나 EAD카드를 받고 영주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올해 H-1B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 H-1B에 대한 많은 예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10만 달러 이상인 직업만 H-1B를 해준다면, H-1B 숫자를 축소한다면, 스폰서가 가능한 회사 조건을 상향 조정

한다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이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문들이 모두 실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이민국과 트럼프의 정책 흐름을 볼 때 내년 H-1B에 대한 핑크빛 희망을 걸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H-1B 추첨에서 운이 없으셨다면 고용주와 차라리 영주권에 대해 상의해보는 승부수를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H-1B 대안, 송동호 종합로펌과 상의하세요!

H-1B가 다가가 아니다!

O 비자

E 비자

P 비자

영주권

H-3

NIW

매력녀, 그래픽 디자이너 윤아
차도남, 공인회계사 공유
핫한 인스타그램 스타, 패션 디자이너 소미
훈남, 건축 디자이너 현빈

모두 H-1B 추첨 탈락자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이 H-1B 대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SONGLAWFIRM

201.461.0031 | mail@songlawfirm.com

SONGLAWFIRM.COM

YouTube Song Law Firm

📍 HQ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 NY 1745 Broadway, 17th Floor, New York City, NY 10019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GEORG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YORK | NEW JERSEY | PENNSYLVANIA | KOREA | CHINA

송동호 종합로펌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불체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미국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우리 아이가 꿈을 꿀 수 있는 나라에서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남의 땅이라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힘들어 하는 일, 나서서 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일터로 향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아이들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불체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SONGLAWFIRM

201.461.0031 | mail@songlawfirm.com

SONGLAWFIRM.COM

YouTube Song Law Firm

📍 HQ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 NY 1745 Broadway, 17th Floor, New York City, NY 10019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GEORG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YORK | NEW JERSEY | PENNSYLVANIA | KOREA | CHINA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융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음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남쪽 개인 우편서비스(프랜차이즈 아님) 연매상 \$550,000
100% 소유자 부재 중 경영, 높은 순수익

보스톤 남쪽 풀러커 연매상 \$1M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캠브리지 컨비니언스 연매상 \$315,000+로터리 좋은 매매가격

스프링필드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40,000 단독건물, 주인 혼자 경영

보스톤 서쪽 드롭오프+셔츠유닛 연매상 \$85,000 소유자 은퇴 매매가격 \$19,000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풀러커 면허증, 대학가 연매상 \$300,000 고급동네

보스톤 서쪽 아침/점심 연매상 \$30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로드아일랜드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0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보스톤 북서쪽 투자상가건물 11유닛, 연수입 \$110,000

다운타운 보스톤 컨비니언스 + 델리, 연매상 \$650,000
Beer&Wine 면허증, 주방 확장 가능

보스톤 남쪽 컨비니언스 + 로터리, 연매상 \$900,000 + 로터리 커미션(\$70,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뉴햄프셔 동양식당 + 풀러커, 연매상 \$3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오프, 연매상 \$155,000 좋은 매매가격 \$65,000

보스톤 서쪽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600,000 고급동네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88,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보스톤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08,000 20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 Beer&Wine 면허증소지, 복권, 매매가격 \$119,000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25,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아카데미 프로그램

1. Weekend Program:

SAT 1, SAT II, AP수업

다년간의 경험의 강사진이 실전 문제와 새로운
문제유형에 따른 수업으로 단기간 고득점 완성

2. Tutoring Program:

학업 과목 개인 과외 알짜배기 강사진 보유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등, 학생에 맞는 최적의 강사를 선정

3. Special Program:

경시대회 준비반

수학경시대회(AMC/AIME), 외국어 경시 대회,
과학 올림피아드를 위한 전문 강사진

2017-2018 고등학교 및 대학교
원서 작업 & 진학 상담

1.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컨설팅

2. 전,현직 입학 담당자와
어드바이저 선생님

프리미엄 가디언 프로그램

1.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와
믿을 수 있는 가디언

2. 아카데미 로드맵 작성으로
학생이 필요한 과목을 집중 공부

3.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및 섬머캠프 활동

Special 섬머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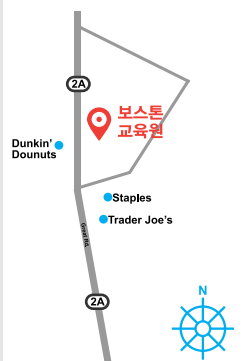
1. 전문적, 체계적 2-4주 보딩 관리

2.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3. 믿을 수 있는 교수진과 다양한 수업 진행

보스톤 교육원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했습니다.

NEW OFFICE LOCATION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